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267호 | 2016년 7월 U.S. ALUMNI NEWS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보

www.snuaa.org news@snuaa.org

SNU Alumni Association USA |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USA | Tel: 484-344-5500 Fax: 484-342-0222 | 발행인: 손재옥 편집인: 김정현



제 25차 미주평의원회의가 6월 24일 부터 26일까지 미 주총동창회 본부가 위치한 필라델피아 근교 Plymouth Meeting 소재 Double Tree 호텔에서 열렸다.

특별히 이 회의를 위해 모교 성낙인 총장을 비롯한 네 명의 모교 본부 일행, 총동창회에서 사절단으로 두명의 부회장과 전무, 기조연설자로 오준 유엔 대사등이 참석 함으로 의미있는 회의가 이루어졌다. 성낙인 총창은 축 사에서 가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벌이 고 있는 '선한인재 장학사업'과 '천원의 식사'를 소개하 며 미주동창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서정화 모교총동창 회장은 이민섭 상임 부회장, 류연수 부회 장, 김경태 전무 등으

앞으로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로 구성된 특별 사절 단을 통해 동영상으로 보내온 격려사에서 미주동창회의 노고를 치하하고 고국과 모교에 대한 사랑을 함께 공유 함으로 발전된 미래를 지향하자고 격려했다. 오준 유엔 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유엔에서 바라보는 북한의 핵' 이란 제목의 연설을 통해 북한 핵이 가져오는 여러 문제 점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분석하면서

회의를 위해 미 전국에서 참석한 13개 지부의 49명의 평의원들과 36명의 위임장 평의원들의 환영 및 소개가 23일 목요일 저녁 아리수 레스토랑에서 있었고, 24일 에는 필라델피아 지역사회에도 오픈한 Brain Network Symposium이, 그리고 25일에는 평의원회의가 열려 미 주동창회의 발전된 미래를 향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26일 서정화 총동창회 회장배 친선골프대회로 막을

내린 이번 평의원회의는 행사 메인이벤트 중 하나인 'Brain Network Symposium'에서 첫번째 강사 김용 헌 신시내티대 교수는 '글로벌시대인 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점들을 예리하게 분석한 후 해결책을 제안' 했고 이어서, 김연호 존스홉킨스대 교수의(급작스런 사 유로 하용출 워싱턴대 교수가 대신한) '북한의 4차 핵 실험과 한반도의 상황을 분석하며 한국이 나아갈 방향 의 제시', 김영수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의 '한미과학계 의 연결과 차세대 지도자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 지에

제 25차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 성료

대한 제안', 한창규 펜실바니아 의대 교수의 '정신병리 (Schizophrenia)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최신 연구에 대 한 설명'의 강연이 차례대로 발표됐다.

강연 도중 참석한 평의원들은 새로운 의학의 연구방법 에 대한 흥미를 보이기도 하고,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 제적 문제점들과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해 함께 안타까워 하며 차세대 지도자의 모델상을 제시하는 내용에 함께 공감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 고 감동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번 평의원회의에서 특기할 만한 두가지의 결정이 이 루어졌다. 첫째는 그동안 서류(회칙)상으로만 존재하던 'Education Committee (장학위원회)'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이다. '기금관리위원회' '(관악)후원회' '모교발전 기금위원회' '미주재단' '선한인재장학금' 등 총체적 난

맥상을 보이고 있는 장학활동을 회칙에 따른 'Education Committee(장학위원회)'로 수렴해 나가기로 하고, 현 회 장을 위원장으로 장학위원회를 정식으로 조직해 모교에 보내는 장학금과 미국 내에서 사용될 장학금의 모금과 장학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둘째는 동창회 회칙에 명시된 채 거의 잊혀져 있던 동 창회 설립목적 중 첫째인 'Charity'를 위해 'Charity Committee (나눔위원회)'를 신설해 활성화하자는 것이 다. 이를 위해 '나눔위원회'를 조직해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 지식, 경험, 열정 등 모든 능력을 회원상호간

> 뿐만 아니라 나아 가서는 동포사회 에 이르기까지 함 께 나누자는 제안 을 만장일치로 통

장학위원회와 나눔위원회에 각각 15,000 불의 예산을 책정한 26만여불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 평의원들과 미주동문 모두가 발전하는 미 주총동창회의 모습을 꿈꾸게 되었다.

이외에도 각 지부를 소개하는 전야제, 미국독립전쟁의 유적지인 Valley Forge National Historical Park도 방 문하고, 문명의 혜택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Amish 마을 이 소재한 Lancaster도 방문하는 등 견문을 넓히는 시간 도 가졌다.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회의에 참가 한 많은 평의원들은 감동과 용기를 교환하고, 미래를 함 께 이루어나가자는 비전을 서울대 동창이라는 질긴 끈 으로 엮어 나눈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되새기며 내년 보 스턴에서의 상봉을 기약하며 제 25차 미주평의원회의 를 마쳤다.

CHANGE SERVICE REQUESTED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95

Inside

본 회보에 게재된 기고문은 회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회보에 게재된 취재기사 및 동문글은 본 회보가 Copy Right을 갖습니다.

1-3 제25차 평의원회의/ 축사/ 격려사/ 기조연설

- 5 정재웅 교수/타이 리/정운찬 전총리/고광국·고국화 부부 :: 16-18 잊지못할 휴가 이야기 모음/ 한선정: 건축기행
- 6-7 제5차 브레인 네트웍 심포지움/ 평의원회의 상보
- 8-9 평의원회의 화보/ 손재옥 회장 · 윤상래 회장 환영사
- 10 평의원회의: 전야제/환영만찬/밸리포지관광/골프
- 11 미주 의대동창회 33차 컨벤션
- 12 지부: 미네소타/워싱턴주/필라/DC/남가주
- 13 지부: 북가주/샌디에고/시카고

- 14 평의원회의 수상자들/ 홈커밍데이 안내/ 수상자
- 3-4 김용헌: 리더쉽/ 엄인호: 메가-FTA/ 기사: 서울대vs하버드 : 15 장용복 오페라산책/ 백순 교수 팔봉문학상 수상

 - 19 Saul Bellow의 작품 세계/ 박동규 교수: 칭찬의 힘
 - 20 신간: 이태상 꿈꾸다 죽거라/ 음악: 최은관 비발디 21-22 전무식: Hamilton/ 박준창: Angel-A /부고
 - 23 이원영: 천억이라도/ 김창수: 칵테일 상식 5
 - 24 장진영: 로봇 수술/ 오피니언: 오세경
 - 25 이달의 사진/ 정태광: Window 10 업그레이드

서울대미주동창회보 267호 | 2016년 7월 2



서울대학교 미주총동창회

제 25차 전국 평의원 회의

2016년 6월 24~25일 Philadelphia

성낙인 총장 축사



참석해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의 인사를 드립니다.

말로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미주 동문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입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자

리를 마련해주신 서울대 학교 미주총동창회 손재 옥 회장님과 바쁘신 일 정에도 불구하고 「서 울대학교 미주 총동창회 제 25차 평의원회」에

대인들이 최초로, 해외 동창회

어왔습니다. 모교를 향한 사랑을 품고, 동문과의 우애를 다지면서, 미주사회에서 활약해 오신 여 러분들께, 경의와 우정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서울대학교의 발전은 학교의 노력 뿐 아니라, 동문 여러 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 히 이곳 미주에 계시는 동문 여러분들의 남다른 애정과 헌신이야

올해는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서울대

학교는 지식탐구와 인재양성이라는 대학 본연의 사명을 완수하

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대학들과 어깨를 견주는 대학으

저는 서울대학교 총장이라는 막중한 책무 앞에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대학」,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대학」, 그리고 「세계와 함께하는 대학」을 서울대학교의 미래상으로 제시하며, 이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다짐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적 가치의 핵심인 공익・공공성・공동 선(共同善)의 원리를 강조하며, 서울대학교가 나아갈 방향의 하 나로 지성과 품성을 겸비한 '선(善)한 인재상' 정립을 제시한 바

선의지(善意志)가 충만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고, 지식활동 또한 선의지로 충만해야 합니다. 선의지가 우리의 의지작용 전체를 관 통하고 생활의 근본을 구성하도록 확립하는 것은 국민과 함께하 는 서울대학교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모국의 안녕과 서울대학교 발전을 위한 동문님들의 격려와 성 원에 늘 감사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동문님들의 헌신과 노력 이 있었기에 서울대학교의 오늘이 있고 또한 미래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우리사회의 번영과 행복에 기여하는 지성의 전당 이자 지혜의 원천으로서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변 화는 서울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대학공동체, 더 나아가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함께 발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가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서울대 교수, 직원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은 부단한 자기성찰과 자기혁신의 노력으로 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대학교가 이루어갈 새로운 미래와 늘 함께 해주 시고, 오늘 이 자리가 미주 동문 상호간의 화합과 역량을 결집하 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문님들의 지속적인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총장 성 낙 인

서정화 총동창회장 축사

존경하는 손재옥 회장님, 윤상 래 수석부회장님, 그리고 미주 총동창회 임원님들과, 각 지부 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평의원 여러분!

제25회 서울대학교 미주총동 창회 평의원회의에, 축하와 격 려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무척 기쁘고, 감사합니다. 미주 지역 은, 1946년 통합개교이후, 서울



를 조직한 곳입니다. 미주 전역을 아우르는 활발한 동창회 활동은, 다른 해외 동창회의 모델이 되

미주동창회는, 지난해 손재옥 회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더욱 치밀하게 조직을 발전시켜왔습니 다. 손 회장님께서는, 회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해, 관악세대 동문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부 간 교 류를 활성화하셨습니다. 이성숙 재무국장께서는, 회계시스템 개발로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셨 고, 김정현 미주동창회보 편집위원장님과 정홍택 주필을 비롯한 편집위원님들은, 회보의 디자인 과 컨텐츠를 개선해, 관심과 참여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헌 신과 노력으로, 지난 한 해 미주 총동창회는, 내실을 다지고 외연을 확장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 게 충심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공로패를 수상하시는, 12개 지부 전 현직 회장님들께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주총동창회의 저력은,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 는 지부조직으로부터 비롯되는데, 막중한 책임을 다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미미했을 때부터, 힘든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한국인, 특히 서울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미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오늘의 업적을 이루신 여러분들이 없으셨다 면, 오늘의 미주동창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궈낸 성취를, 모교 후원, 후배 지원, 동문 간 우호 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주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같은 서울대인으로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에 서울대학교 35만 동문 모두와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미주 총동창회로부 터 표창패를 수여 받으시는, 두 분 동문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박종수 동문은, 후배들을 위한 장 학금으로, 10만 달러를 기부하셨고, 2013년에는 약 20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기부하여, 모교 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다고 합니다. 이수호 동문은, 미국에서 31년째 한의원을 경영하시면서, 미국사회에 한의학을 널리 보급하시어, 모교와 조국의 위상을 높이신 분이라 하십니다. 미주 동문 여러분들과 함께, 두 분 동문께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날 세계 초일류 대학들의 공통점은,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활발한 동문조직이 있다는 점입니다. 동문들을 중심으로 한 인적, 물적 지원을 통해 학교가 발전하고, 그렇게 배출된 우수한 후배들이, 다시 동창회의 일원이 되어 동문사회를 발전시키면서, 모교와 후배들을 지원하는 선순 환 구조가, 서울대학교에도 갖춰져야 하는데, 미주총동창회야말로, 그러한 역할을 보여준 모범적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총동창회장에 취임한 뒤, 동문 조직을 재정비해 동문들의 뜻을 모으 고, 재정을 효율화해 지난해에만, 장학금 중심으로 4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여러분들과 같은 방향 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는 1895년 개학과 1946년 통합개교 이후, 줄곧 국가 의 중추에서, 민족의 미래를 선도하는 지도자들을 배출해왔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세계적인 불황 과 불안정이 심화되는 때일수록, 서울대인에게 주어지는 책무는, 더욱 엄중하다 하겠습니다. 앞으 로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여부도, 바로 오늘날, 서울대학교 와 후배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교 를 향한 사랑은, 곧 조국을 향한 충정과 통합니다. 미주총동창회가 앞서 보였던, 그 사랑과 충정이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모든 서울대인에게, 널리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총동창회장으로서,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임에도, 부득이하여 영상으로 대신하게 된 점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면서, 미주총동창회의 발전과, 동문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서 정 화



25일 토요일 저녁 평의원회의 만찬에서 오준 (문리대 불문과 74, 사진) 유엔대사의 다음과 같은 기조연설이 있었다.



이었다. 당시 대 북결의안이 채 택된 후 위와 같 이 말한 오 대사

"김정은, 이제

그만하세요."

올해 3월 유엔

안보리 회의장

에 울려퍼진 오

준대사의 외침

는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호 소해 왔다.

그는 이번 평의원회의 기조연설에서도 '유엔에서의 북 한 핵문제'라는 제목으로 "국제적으로나 통일에 대해 서나 북한 핵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 대사는 "옛날부터 무기를 사용해 남의 것을 차지하 는 데 주력해 온 인간은 석궁에서 기관총, 폭탄이나 미 사일 전투기에서 결국 핵무기까지 가지게 되었다"라며 핵무기는 그 자체로도 위력적이지만 탄도미사일을 이용 해 대기권 밖으로 솟구쳤다가 중력으로 내리꽂는 방식 을 통해 가공할 살상무기가 된 현 상황에서 북한이 보여

주고 있는 핵실험 뿐만 아니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유엔에서 본 북한 핵문제

[기조연설]

는 설명을 이어나갔다.

핵무기 확대를 우려한 국제사회에선 1970년 NPT 체제 (핵확산방지조약)를 만들어 핵무기를 줄여나가자는 합 의를 시도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이 조약에 아예 들어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핵기술을 개발했다. 이 와 달리 북한은 남한처럼 핵확산방지조약에 가입해 핵 기술을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89년 프랑스 인공위성에 의해 의심스러운 영 변핵시설이 공개된 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안전 조치협정을 체결하였으나 후에 IAEA의 사찰을 거부하 다 안보리의 결의 825호에 의해 94년 10월에 경수로 2 기와 중유를 제공하는 제네바 합의를 이루었다가 2003 년 1월 NPT로부터 탈퇴를 선언했다. 동 8월에 6자회담 이 처음으로 열렸으며 2005년에는 '9.19 공동성명'으로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NPT와 IAEA로의 복 귀를 약속했으나 2006년 10월에는 1차 핵실험을 강행하 고 금년 1월 4차 핵실험까지 계속해 오고 있다. 게다가 두번에 걸친 인공위성발사를 이유로 탄도미사일실험까 지 해 온 상태이다.

현재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타이틀을 협상 카드가 아 닌 자체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 또한 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도 북한은 핵실험을 지속하면서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대우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오준 대사는 "역사에서 보여주듯 이 북한 같은 독재국가는 외부침입이 아니라 내부로부 터 붕괴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나 한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핵무 기를 가지려는 모든 NPT 가입국들의 북한의 전철을 따 라가는 어리석은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 엔이나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허락할 수가 없는 것이고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실험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민감 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UN 안보 리의 이번 대북제재는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고자 "지금 까지의 북한 제재 중 가장 강한 단계"로 설정된 상태다.

"이런 강력한 제재를 받는 한 1년 이상 오래동안 버티 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한 오준 대사는 "핵 보유로 관 련되는 국가 간의 균형을 갖자는 주장도 있지만 유엔 등 에서 그런 긴장 상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북 한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오준 대사는 "통일이 되려면 핵 문제 해결뿐 아니라 남 북 간의 신뢰 회복, 차세대의 통일 인식 등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는 것으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얼마 전 이뤄진 서울대 통일인식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이 60%에 달했다. 오준 대사의 말대로 북한을 한민족으 로 품고 통일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더 많아져야 한다 는 걸 참석한 평의원들이 절감하는 연설이었다.

BRAIN NET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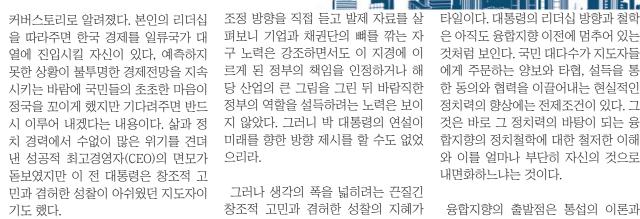
최근 20대 국 회 개원식 연 설에서 박근 혜 대통령은 화합과 협치' 에 걸맞은 '정 소통'을 강조 김용헌 (경영대학원 66) 했다. 지극히

임에도 모두가 이를 일단 반기는 까닭 은 총선 전후를 거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 던 청와대 안팎의 기류 때문인 듯하다. 더구나 지금까지 보아온 박 대통령의 정 치 스타일에 비추었을 때 국회를 향한 화합과 존중을 언급함에 있어서라.

그러나 산적한 국내외 정치·경제 현안 들로 과부하 상태인 한국호(號) 선장의 대국민 담화에서 기대되는 끈질긴 창조 적 고민, 겸허한 성찰의 지혜, 그리고 국 서 대통령의 깊은 속내를 읽어내는 감 다가왔고 주변이 도와주지 않아서 어렵 살필 일이다. 각이 무디어진 필자의 탓이라고 믿고 다는 내용이다. 싶다.

오른다. 당시 정국의 난맥상을 풀어내려 에 담긴 정책들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한 적이 있다. 과거지향, 현재지향, 미래

쉽 리더



지금은 2008년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 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박 대 통령은 8년 전 이 전 대통령의 '사고의

8년 전에 기고했던 칼럼이 기억에 떠 회의는 정부의 '산업·기업 구조조정안' 화를 이끌어내는 리더십 스타일'을 소개 제로 하면 될 것이다

펴보니 기업과 채권단의 뼈를 깎는 자 은 아직도 융합지향 이전에 멈추어 있는 구 노력은 강조하면서도 이 지경에 이 것처럼 보인다. 국민 대다수가 지도자들 르게 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해 에게 주문하는 양보와 타협, 설득을 통 당 산업의 큰 그림을 그린 뒤 바람직한 한 동의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현실적인 정부의 역할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보이 지 않았다. 그러니 박 대통령의 연설이 미래를 향한 방향 제시를 할 수도 없었 합지향의 정치철학에 대한 철저한 이해

그러나 생각의 폭을 넓히려는 끈질긴 창조적 고민과 겸허한 성찰의 지혜가

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지가 타임지의 정부가 추진하는 조선·해양업의 구조 지향을 뛰어넘는 융합지향의 리더십 스

정치력의 향상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그 것은 바로 그 정치력의 바탕이 되는 융 와 이를 얼마나 부단히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느냐는 것이다.

융합지향의 출발점은 통섭의 이론과 연설의 내용에 묻어나게 하는 것은 자 그 뿌리를 같이한다. 세월호 사태를 '퍼 신의 몫이다. 국민의 감동과 이해를 이 펙트 스톰'으로 인식하고 국민적 대토론 끌어내려면 예컨대 대통령이 그토록 강 을 제안했던 필자는 한국호의 선장은 물 조하는 '창조경제'의 아이디어가 본인의 론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도자들에 민에게 안정감을 주려는 의지가 엿보이 _ 틀'을 거의 답습하고 있다. 정부는 열심 '창조적 정치 스타일'로도 이어질 가능 _ 게 간절한 바람이 있다. 그것은 21세기 지 않는다. 반세기 가까이 외국에 살면 이 하고 있지만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성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했는지 국가 발전전략에 걸맞은 주제들을 체계 적으로 정해 국민적 합의와 이해를 이끌 어내기 위해 융합지향의 국민적 대토론 1980년대 후반 풀브라이트재단 초청 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개헌, 6월 초 모처럼 참석한 민간금융위원 으로 서울대에서 1년간 강의하면서 '변 통일, 정의로운 경제, 청년실업 등을 주

> 〈신시내티대학교 경영대 교수 한미경제학회 회장〉

서울대미주동창회보 267호 | 2016년 7월 서울대미주동창회보 267호 | 2016년 7월



엄인호 (농대 57)

최근 글로벌시장에선 전례 없는 메가-자유무역협정(다 자간 FTA)열풍이 거세게 불 고 있다. 메가-FTA의 하나 인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아세안 10개국 참여)는 지 난 2015년말에 이미 출범했 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 정 (TPP, 미국과 일본이 주 도해 12개국이 참여, 한국은

빠졌음)은 지난해 10월5일 타결, 2017년초에 발효될 예 정이다. 그 외에도, 현재 여러개의 메가-FTA 협상이 세 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현재 협상 중인 메가-FTA는 다음과 같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 아시아태 평양 자유무역지대 (FTAAP), 한-중-일 FTA, 등 이다. 그 중 미국과 유럽연합 (EU)간의 협상중인 범대서양무역투 자동반자협정 (TTIP)를 빼고는 모두 중국이 주도하고 있 으며 한국도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메가-FTA협

글로벌화 된 이후, 자유무역협정 (FTA)은 글로벌시장에 서 경제영토를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FTA회원국은 관세의 하락으로 교역 상대국에서 교 역창출과 교역전환효과에 의해 교역량이 확대되는 동시 에 비회원국들은 교역전환 효과에 의해 교역상대국에서 서서히 시장을 잃게 된다. 다자간 FTA는 양자간 FTA에 비해 거대 경제권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가 한꺼번에 참여 함으로 교역창출과 전환효과가 모든 회원국들에게서 동 시에 발생하므로 양자간 FTA에 비해 막강한 수출 경쟁 력을 얻을 수 있다. 메가-FTA의 확산은 글로벌시장에서 의 무한경쟁시대를 의미하며 국제 경쟁은 현재보다 더 치 열해 질 것이다.

상의 배후에는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경제패권경쟁에서

상호간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략이 깔려있다.

이러한 경제영토확장을 위한 메가-FTA열풍 속에서, 한 국은 지난10여년 간에 걸쳐 양자간 FTA 총15개 (작년말 기준, 51개국포함)를 개별적으로 체결하여, 세계10대 교 역국 중 유럽연합 (EU), 미국, 중국, 등 글로벌 3대 경제권 모두와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TPP참여 기회를 놓쳐, 12개 TPP회원국중 일본과 멕시코 를 제외한 10개국과는 한국이 양자간 FTA를 맺어 일본 에 비해 시장선점 효과가 있었으나, TPP가 발효되면 10 개국에서의 경제영토 선점효과가 서서히 희석될 위험에

메가-FTA와 인공지능혁명: 실업 공포의 현실화?

당면한 것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TPP와 같 은 메가-FTA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으로, 서둘러서 TPP발효 전에 가입해야 한다.

메가-FTA확산으로 인한 무한경쟁시대에 필요한 경쟁 력 제고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산물 (예, 로봇,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IoT), 웨어러블, 모바일, 3D 프린터, 드 론, 자율주행차 등)을 도입하여 생산성의 향상과 비용절 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모든 분야 에서 인공지능을 장착한 컴퓨터와 로봇이 폭발적으로 도 입돼 수많은 기존 일자리는 파괴될 수 밖에 없다.



디지털혁명은 과거 일자리를 폭발적으로 창출했던 전 기, 자동차 발명과 달리 인간의 일자리를 빠른 속도로 잠 식하고 있다.

또한 신기술이 요구하는 일자리가 어느 정도 창출되지 만, 신기술 일자리를 채울 인력은 부족해 수요와 공급간 의 '미스매치' 현상으로 실업률도 악화될 것은 불가피해 진다. 20년 안에 세계 일자리 47%가 사라진다는 경고는 세계 석학들(예, Oxford대학, MIT대학의 연구)에 의해 이 미 여러 채널을 통해 널리 알려진 바 있다. 기계 (특히 로 봇과 인공 지능 혁명)에 의한 노동 대체 현상이 예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금년 1월 18일)에서 발표된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 에 의하면, 전 세계 일자리 중 5년내 약 500만개 (순 감소)가 사라질 것 으로 전망했다. 머지않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군 은 사무행정직, 제조업생산직, 건설채광업직종 등 이고, 신규 직종으로 인력이 더 필요한 직종은 재무관리, 매니 지먼트, 컴퓨터, 수학 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맥킨지 연구소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2030년 까지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일자리의 약 80%가 사라진 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 차의 출현으로 운전기사 (트럭, 택시, 버스 등)의 일자리 가 사라질 것이고, 교통 사고율이 감소돼 자동차 보험업 이 대폭 축소될 것이다. 3D프린터는 제조업과 운송업을 축소, 그리고 드론은 배달업을 축소시킬 것이다. 디지털 교육은 교사의 필요성을 대폭 감소시킬 것이다. 그뿐 아 니라, IoB (Internet of Brains)에서 비롯되는 고도의 인 공지능은 화이트칼라 전문직들 (예: 회계/세무, 약사, 기 자, 의사, 금융, 법률, 경제 전문직 등)의 수요를 감소시 킬 것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미국에서는 최근 몇년간 회 계사와 세무사 등의 수요가 실제로 8만개 이상 줄었다. 영국의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RBS)는 경비 절약 을 이유로 '투자와 보험상품자문역' 500명을 감원, '로보 어드바이저(Robo Advisor) 서비스'로 대체한다고 파이 낸셜 타임즈가 3월13일 보도했다.

현재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인공지능이 쉽게 침투할 수 있는 일자리 영역(%)은 다음과 같다: 상담역(32%), 데이터 분석(24%), 비서 역(15%), 경영컨설팅(8%), 보 고서 작성(5%), 웹로그 분석(5%), 로봇공학(4%) 등. 그 러면 인공지능을 장착한 컴퓨터 로봇 (컴퓨터화)에 밀려 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종은 무엇일까?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의하면 창의적 지능을 요구하는 고학력전 문직종들 (예: 동물학자, 통계학자, 사회학자, 수학자, 지 리학자, 전기/원자력 엔지니어, 의사, 치과의사 등)그리 고 사교적지능과 독창력, 설득력, 교섭력, 통솔력과 같 은 독특한 능력을 요구하는 직종 (예: 목회자, 경영관리 직, 인사관리직, 금융직, 교육직, 변호사직 등)은 컴퓨터 화가 확산되어도 실직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 가하고 있다.

로봇과 인공지능혁명으로 눈앞에 다가온 인공지능시 대, 인공지능을 어떻게 통제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진지 한 논의와 국가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공지능에 대 한 '실업 공포'가 현실화될 것이 우려되는 이 때, 기술 실 업에 관한 중장기적 대응 정책이나 일자리 재조정에 관 한 정책 및 전략도 거의 전무 상태라는 것은 젊은 세대 에 심각한 불안요소이다.

〈전 캐나다 연방국제무역위원회 수석경제학자〉



서울대 출신이 창업한 543개 기업이 연간 400억달러 (41조5088억원)의 매출을 창출하고 10만174명을 고용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당 평균 매출 규모는 764억 원으로 국내 사업체 매출 평균(4억107만원·2013년 기 오 의장 등이 창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준)의 190배에 달했다. 이는 국내 라이벌 창업대학인 카이스트 동문 창업기업(903개)의 매출액(10조8443억 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1개 기업당 평균 매출액에서 적인 창업대학인 스탠퍼드·MIT·하버드 등의 매출과 한 결과를 보면 동문 창업기업의 연매출이 2조7000억 도 카이스트(108억원)의 7배 이상이었다.

회적 기여도를 분석한 것은 개교 이래 처음이다.

서울대 창업기업 年41조 vs 하버드 4447조

대 531명(18.8%) 등 순이었다. 2000년대와 2010년대 달러(약 4446조7800억원)로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 졸업생 창업자는 각각 76명(2.7%), 6명(0.2%)에 그쳤 계 4위인 독일을 앞질렀다. 다. 출신 단과대학별로는 단연 공대 출신 창업자(1835 명)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농업생명과학대(239명), 사 미국 비영리단체 코프먼재단이 올해 1월 발표한 MIT 회과학대(176명), 경영대(129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해진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김범수 카카

비교하면 0.9~1.8%에 그쳤다. 대학 역사와 시장 환경, 달러(약 3078조5400억원)에 달했다. 국가 경제구조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이들 서울대가 동문 창업기업 현황을 전수조사해 경제·사 대학과 비교하면 다윗과 골리앗 수준이다. 지난해 12 서울대 역시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글로벌 창업대학 월 발표된 '하버드대 동문의 경제·사회적 글로벌 영향' 으로 퀀텀점프하기 위한 위기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 보고서는 하버드대 동문들이 창업해 활동 중인 벤처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박종래 서울대 기술지주 졸업 연도별 창업자 현황을 보면 대상자 2819명 중 (Active Ventures)가 150개국에서 14만6429개에 달하 회사 대표이사(재료공학부 교수)는 "창업이 쉽지 않은 781명(27.7%)이 1980년대에 졸업했고 1960년대 졸업 며 일자리 창출 규모는 2040만명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환경에서 서울대 동문기업들이 41조원이라는 성과를

보고서에는 MIT 동문이 배출한 기업은 3만200개로 연 간 46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들 업체의 1년 매 이랜드를 설립한 박성수 회장과 네이버를 창업한 이 출액은 1조9000억달러(약 2166조3800억원)로 GDP 기준 세계 9위 러시아(2조970억달러), 10위 인도(1조 8770억달러) 사이에 위치했다. 2012년 미국 스탠퍼드 대 공대 소속 척 이슬리 교수팀과 경영대학원의 허버트 그러나 서울대 동문 창업기업의 매출액 합계는 세계 후버 교수 연구팀이 스탠퍼드대의 경제 영향력을 분석

생이 639명(22.7%), 1990년대 392명(13.9%), 1970년 하버드대 동문이 창업한 기업의 연 매출은 3조9000억 낸 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매일경제〉

[인터뷰]

USC 미생물학과 학과장 정재웅 박사

"지카바이러스, 소두증 유발 유전자 발견"



전 세계가 지카 바이러스 확산의 공 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인 태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가 능성이 높은 유전자를 밝혀낸 한인 교 수가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USC 미생물학과 학 과장 정재웅(농대 78, 사진) 동문으로 지난 9일 USC 아레스티 컨퍼런스 센 터에서 열린 '지카바이러스 인식 학술 토론회'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태아의 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정 박사는 "지카바이러스가 소유 한 10가지의 유전자 중에서 NS4A와 NS4B 2개의 유전자가 태아 소두증을 일으키는데 관련이 높다는 결과가 나 왔다"며 "NS4A와 NS4B 유전자는 감 염자의 신경줄기세포(NSC)에 침투해 태아의 배아줄기세포가 뇌세포로 분 화하지 못해 뇌 조직이 제대로 형성되 지 않아 뇌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밝

모교 식품공학과 출신인 정 박사는

1985년 UC데이비스 미생물학 박사과 정을 마치고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교 수로 19년간 재직했으며 8년 전부터 USC 미생물학과 학과장으로 근무 중

USC 이멀징 패토젠 연구소 소장으로 도 활약 중인 정 박사는 USC 신경생 물학 연구소(Neurobiology Lab)와 6 개월에 걸친 연구 끝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소두증을 유발하는 유전 자를 발견하는 성과를 냈다.

정 박사는 "지카바이러스 연구계에 서 백신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인데 내 년 상반기 쯤 임상실험이 행해져 내년 하반기 때는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농 후하다"며 "현재의 연구 결과를 토대 로 지카바이러스 약을 개발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 〈미주한국일보 발췌〉

`우수 아시안 아메리칸 기업인상' 타이리대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판매 및 서비스 업 체 SHI(Software House International)의 타이 리 (57·사진·한국명 이태희) 대표는 맨하탄에서 16일 열 린 아시안 아메리칸 비즈니스 개발 센터(AABDC)의 '2016 우수 아시 안 아메리칸 기업인 50인상'의 피나 클 상을 수상했다. 리 대표는 2012 년 사망한 아버지의 삶의 궤적을 소 개하는 것으로 이날 수상 소감을 대

리 대표는 "내가 기업을 운영하기 로 결정한 것은 대학을 다닐 당시 리대표는 "일본 패망 후 한국에 돌 결정을 내린 대학으로의 오랜 여정 다"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기홍(영문과 46) 전 경제기획원 차 내며 일본의 장학생으로 선발돼 히 다.



로시마에서 고교와 대학을 다녔다.

였다. 돌아보면 잘한 결정이었고 그 아온 아버지는 서울대 재학 중 미 군정 최초의 개인 통역가로 취직했 은 사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시작됐 다"며 "어느 날 미군 장군이 아버지 를 불러 업무를 칭찬하며 무엇을 해 줄까를 물었을 때 아버지는 미국에 1922년 태어난 그의 아버지인 이 서 공부하고 싶다고 주저 없이 대답 했고 장군의 추천으로 1948년 엠허 관보는 가난에 찌든 어린 시절을 보 스트 칼리지에 유학 왔다"고 소개했 〈미주한국일보 발췌〉

경제의 미래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주제 의 궁극적 통일도 강조했다. 로 강연을 했다.

이 강연회는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를 표'로도 불린다. 기리는 전시회 참석 및 강연을 위해 LA를 방 문한 정 전 총리의 일정 중 하나로 열렸다.

정 전총리는 불확실성의 미래경제에서 중 회'의장을 맡고 있다. 소기업 위주의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 고 초과이익, 즉 이익이 많이 남으면 더 배분

정운찬 전 총장 LA 강연

할 수 있는 초과이익공유제로 대기업과 소 기업이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동반 성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산능 력 확충,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임 대소득 등 투자와 소비를 강조하는 한편, 대 기업은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소기업은 자본 제 23대 서울대 총장과 제 40대 국무총리를 의 부족함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 지낸 정운찬(상대 66) 전 국무총리가 6월 3 해 단기적으론 동반성장, 중기적으로 교육혁 일 오후 3시 옥스포드팔레스호텔에서 '한국 신의 필수와 장기적으론 남북 경제협력으로

오늘의 정운찬 전 총리의 기반이 되어준 수 남가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남가주총 의학자이며 의료선교사인 스코필드 박사는 동창회 (회장 김병연, 공대 68), 윌셔은행, 1919년 3.1만세운동과 제암리 사건 피해현 BBCN Bank, 한국일보, 중앙일보, Sport 장 등을 사진에 담아 전 세계에 알리며 한국 Seoul USA, KBS, MBC 등의 후원으로 열린 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으며, '34번째 민족대

정운찬 전 총리는 스코필드 박사의 도움으 로레스 한 한인상공회의소 소장, 윌셔은행 로 중고등학교 및 모교에서 경제학 (66년 입 유재환 행장, 남가주총동창회 김병연 회장 학)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으며, 1970년 의 축사와 나영환 가수의 축가, 김재현박사 스코필드 박사가 별세하기 전까지 인생의 멘 의 강사소개 및 귀빈소개가 있은 후 구경완 토로 관계를 유지하며 기념사업회의 의장으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강연이 시작되었다. 로써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정운찬 전 총 장은 '스코필드 박사 내한 100주년 기념사업

〈백옥자(음대 71) 조직국장〉

고광국/고국화 부부 동문 아이오와 대학 자랑스런 동문 선정



공대 화학공학과 동문 고광국(공대 54), 김국화(공대 56) 박사 부부가 금 년도 4월 28일에 아이오와(Iowa)대 학교 공대의 2016 년 자랑스러운 공 대 동문 (Distinguished Engineering Alumni

Academy) 으로 선출되었다.

Iowa Alumni Academy에 의하면, 금년에 두 부부 동문이 선출 된 것은 Iowa 공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고광국 박사는 재미 한인 자동차산업인 협회 회 장 (1984-85)과. 재미 한국 과학기술자 협회 회장 (1988-89)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두사람은 2009년 도 서울공대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수상하기도했다.

현재는 손수 설립한 Chrysan Industry 에서 은퇴 하고 Northville, Michigan 에 거주하며 Chrysan Industry의 사업영역에 관련된 International Conference와 Seminar, 그리고 차세대 후학들을 위한 scholarship project와 세계 명소 탐방 계획등으로 여전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조병권(공대 64)〉

서울대미주동창회보 267호 | 2016년 7월



평의원회의 첫날인 24일(금) 오전 9시 부터 시작된 5차 브레인네트웍 심포지엄 은 여러 사회문제와 학술적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으로 서울대 미주동창 회가 지적인 모임이 되는 밑거름이 됐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갈 증을 해소하고 차세대 동문들을 품고 교 류하려는 동창회의 바람에 한 걸음 다가 가는 시간이기도 했다.

브레인네트웍 담당 부회 장인 하용출(문리대 67) 워싱턴대 한국학 교수 는 "동창회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인 브레인네트 웍에서 함께 생각해 보

는 시간을 얻어가길 바 란다"며 심포지엄의 포문을 열었다.

첫번째 강연은 심포지움 당일 브렉시트 라는 폭풍이 불었던 것처럼 갈수록 요동 치는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이 겪는 어려 움에 대해 논하는 시간이었다. 강단에 선 김용헌(경영대학원 66, 신시내티대 금융 학) 교수는 불확실성과 불연속성의 시대 속에서 "한국의 상황은 태평양 가운데 꼼 짝 못하는 큰 배와 같다"고 비유했다. 낡 은 산업구조에도 과잉설비가 지속돼며 금융 및 실물 경제가 오랜 침체에 갇혀 있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 년을 더 빠르게 답습하고 있지만 현 정부 는 미비한 대응력으로 일관하는 상황"이 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경제민주화'라 든가 '창조경제' 등은 현란한 구호에 불 과하고, 현재 나와있는 구조조정 대책도 부실하기 짝이 없고 4대 개혁(노동개혁, 공공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중 어느 것도 해결되지 못했다. 그는 "그럼에도 현 정권은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서 남 탓 만 하는 상황"이라며 문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본인 자신은 개혁할 의지를 전혀 보이 지 않으면서 기업이나 국민에게는 개혁 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 이다. 장밋빛 전망을 내려놓고 함께 감내 하는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 어려운 세 대를 설득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희 망을 주려면 정의로운 경제를 일궈야 한 다."고 제안했다.

김연호 교수를 대신해 강연을 맡은 하용 출 교수 또한 한국이 처한 또 다른 위기 에 대해 언급했다.

용하는 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모교와 미주 동문 모두가 "국가적, 미래의 차원 에서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고민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교수(공대 76,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환경공학)는 재미한인과학기술 자협회(KSEA)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한 국의 미래를 위해 섬김의 리더쉽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44명의 전임회장 중 43명 이 서울대 동문인 KSEA에선 차세대 한 인 과학자 양성을 위해 워크샵, 오지 아

스피어의 문구를 인용하며 그는 "마음만 큼 인간 행위의 복잡함을 잘 보여주는 것 도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트라우마에 대해 언급하며 그는 "어제와 또 다른 오 늘의 뇌가 존재하는 건 과거의 한 외부 사건이 유전자와 뇌에 영향을 미쳐 오래 도록 기억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유전 자 단위와 환경적 요인까지 복잡하게 상 호작용해 '마음'이라는 정신기작이 존재 하는 셈이다.

또한 그는 복잡한 정신병리 기전 연구 중

자 3만 6천명을 대상으로 역사적인 유전

연구(DNA)를 진행한 결과 108개 정도의

locus를 발견했던 것. 하지만 이는 전체

경우의 수에 비하면 10%에 불과하다. 한

교수는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우

가 다르다는 의미"지만 그럼에도 "다양성

이 보편적인 것으로 수렴하는 정신병리

네 연사와 청중 간의 대화는 점심시간

후에도 계속됐다. 경제민주화라는 개념

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미국의 대북

전략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북한 체제

가 붕괴할 가능성은 없을지 등을 두고 열

띤 토론이 벌어졌다.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해 인문학이 가질 역할, 정신병리 기전

에 대한 요인별 영향력에 대한 질문도 이

어졌다. 여러 생각할 거리들을 안겨준 이

번 심포지엄은 모교 동문이 함께 모여 한

국의 미래를 위해 고민할 수 있는 유익한

김지윤(생명과학 11) 본보 인턴기자

시간이었다.

기전을 밝혀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하나로 schizophrenia(정신분열, 조현병) 사례 를 들었다. 다양한 형태 로 나타나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에게 어떤 공통점

▶필라델피아 전방남 지부회장, 13대 손재옥 회장, 윤 이 있다면, 그 공통점을 상래 차기회장(14대)의 환영사와 총동창회 서정화 회장 찾아 치료함으로 포괄적 치료방법을 제 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시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가설하에 환

▶박형준 섭외국장(공대 87)에 의해 제24차 회의록이

25일(토) 오전 9시 미주동창회 본부가 위치한 필라델피

아 근교 Blue Bell 에 소재한 Calvary Vision Center에서

제25차 평의원회의가 열렸다. 제13대 손재옥 회장(가정

77)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교가합창에 이어, 이

날이 6.25인지라 특별히 한국전쟁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이 있었다. 필라델피아 전방남 지부회장(상대 73)의 환

영사와 윤상래 차기회장(수의 62)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서정화 총동창회 회장(법대 55)은 멀리 한국에서 영상을

오전에는 24차 평의원 회의록을 속독하며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오후에는 오전의 회의를 속개해 안건

을 마저 상정하고 이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무엇

보다 지난 1년 간의 사업 보고와 더불어 앞으로 미주동

창회가 해나가야 할 사업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날 진행된 회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들을

〈오전 세션〉

▶성원 보고 전체 평의원 참석자가 152명 중 49명, 프

록시(위임장) 36명이 참석해 총 85명으로 의사 표결 정

족수를 넘어 정식으로 개회가 선언됐다.

통해 평의원 회의의 시작을 격려했다.

담아 간략하게 요약한다.

"차세대를 가능한 한 많이 영입해 그로부터 새로운 아 이디어를 받고 양질의 심포지엄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봤다. 서울대 미주동창회이기에 더더욱 지 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동창회 전체적으로 체계가 잡히 는 대로 브레인네트워크 심포지엄 또한 강화될 것이라 는 전망이 잇달았다. 사회자인 박형준 국장은 "필라 지 역 신문에 실린 브레인네트웍 안내광고를 보고 참석한 필라델피아 지역 주민도 있었다"며 차세대부터 일반인 까지 많이 참여해 같이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의 견도 제시했다.

제 25차 미주평의원회의 상보

▶**동창회보 보고**(김정현 편집위원장) = 김정현 편집 위원장은 회보는 동창회의 목적이 아니라 동창회의 존 재 목적을 잘 수행하도록 돕는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 히 하고, 기사배정에 있어서도 동창회의 목적인 Charity (나눔)과 Education(배움)을 알리고 실천하는 동문들 의 활동기사를 우선적으로 취급해 왔다고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회보에 실린 739개의 기사중 18%에 이르는 친목 기사(연말연초파티, 음악회, 미술전 시회, 야유회, 골프대회)에 비해 장학금 기사는 1.6%, 나 눔에 관한 기사는 1.8% 밖에 안된다"며 동창회의 활동 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했다.

전면 칼러로 교체, 웹사이트에 잡지처럼 양면을 펼쳐 볼 수 있도록 PDF 파일을 올리는 등 회보 자체도 여러 변화를 거쳤다. 또한 여러가지 주제로 의견들을 나누는 특집을 통해 동문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며 꾸준히 동문

등을 모아 동포사회에 이르기까지 사역을 넓혀 나갈 것" 을 제안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 한정민 소장(농가정과 87) 또한 연 단에 올라 나눔을 위한 후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개 인 후원부터 회사의 작은 후원 등이 나눔을 실천하는 사 업들에 큰 보탬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세일즈를 정말 못하지만 직접 상담을 하며 집에서 벌어지는 전쟁같은 트라우마들을 알기에 이 자리에 섰다"며 동창회가 이런 목적을 앞세우게 된데 대한 감사를 전했다.

▶멘토링 프로그램 보고(손재옥 회장) = 손 회장은 "인턴쉽 운영에 있어 비자 문제가 있는 관계로 공식적으 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아쉬움 을 드러냈다. 하지만 좋은 기회를 이어가기 위해 그는

"회장 개인 단위에서라도 멘토링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 영하고 학생들의 문의를 받는다"고 말하며 이번 여름 인 턴으로 온 모교 대학신문 부편집장 김지윤 (생명과학11) 학생을 소개했다.

▶회칙위원회 보고(한재은 회칙위원장) =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평의원회의에서 의결된 회칙개정사항을 영 문으로 번역해 발표했다. 사회봉사를 회칙으로 넣기로 한 결정은 회칙에 이미 Charity가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 기 때문에 넣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회장의 권한 에 따라 임원수가 달라짐으로 인해 평의원 수가 유동적 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낭독됐다. 제24차 회의록은 지난 2015년 6월 20일 같은 장소에서 실시한 제24차 평의원회의 결과다. 강영래 감 사를 박영철 감사로 수정하고 통과 되었다.

▶**사업보고**(손재옥 회장) = 손재옥 회장은 미주동창 회 회원 관리 시스템을 수월하게 만들고 회계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자 노력했던 경과에 대해 보고했다. 처음 엔 두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에 담고자 했으나 한국어 가 미국 소프트웨어와 충돌하는 측면이 강해 회계와 회 원관리 시스템 개발을 따로 진행해야 했다. 임기 끝나기 전까지 회원 데이터를 최대한 업데이트해 인프라를 구 축하는 게 목표다.

▶**내부감사보고**(박영철 감사) = 미주동창회 지부가 1년 단위로 바뀌는 과정에서 세금 보고에 관한 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세금 관련 자료 정리 및 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를 어떻게 갱신할지, 새로운 아이디가 필요할지에 대한 언급이 있 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분명치 않은 부분에 대한 질문 과 보강하겠다는 답변

▶**포상위원회 보고**(손재옥 회장) = 공고가 일찍 나 와야겠다는 의견과 함께 "상을 왜 이렇게 많이 주느냐는 있었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미주동창회에서 이렇게나 마 보답하지 않으면 너무 죄송스러울 것 같아 포상을 많 이 준비해둔 것"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브레인 네트워크 심포지엄 평가**(하용출 담당 부 회장) = 미주동창회 정체성 차원에서 브레인네트웍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다. 하 부회장은 은 동문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 재능, 전문지식과 열정

들의 참여를 격려해 17%로 시작한 작년 7월호에 비해 5월과 6월호는 80% 이상의 기사가 동문들의 기고로 회 보가 만들어졌다며 회보의 괄목할만한 발전상황을 감사 와 함께 전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는 논설위원을 보

회보에 대한 여러 질문은 회보에 대해 한층 고조된 관 심을 방증했다. 오인환(문리 63) 전임회장의 "회보 발행 에 10만 불 정도가 나가는데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메일 주소 활용과 웹사이트 발전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에 이는 본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다 활성화하고 좋은 필진을 확보하는 한편 전자책으로

의 전환, 회원 이메일 주소 확보 등에 다가갈 것"이라고

▶웹사이트 운영 보고(김원영 IT위원장) = 현재 12 대 회장단의 요청으로 워드프레스라는 오픈소스를 웹사 이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얼마 전 해킹을 당한 적도 있기에 보안 문제를 보다 강화하고 앞선 의견들처럼 회 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웹사이트 개발과 주소록 업데이 트 등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눔위원회를 조직해 각 지부의 활동을 지원하고 더욱 많 기도 했다.

▶재무보고(이성숙 재무국장) = 회비 운영 상황과 예 산 현황, 장학금 운용 등에 대한 재무보고가 이뤄졌다. 이 국장은 "현재 예산액의 96% 회비가 들어온 상황"이 며 "후원회비가 77% 증가해서 회비가 다 들어오지 않았

또한 모교발전기금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 어떻게 사 용할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관악 후원금, 한국발전 기금, 모교발전기금용 장학금 등 회기마다 이름이 바뀌 어 혼동이 온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작년도 이월금 을 수익금에 넣었는지 전회기이월금이라 기재했는지 등 에 대한 확인절차가 이어졌다.

음에도 다음 회기의 예산이 증가한 상태"라고 보고했다.

〈오후 세션〉

▶토의안건(손재옥 회장) = 1.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2. 인선위원 선출 3. 메디컬 캠페인 위원회 정 체성에 대한 건의 4. 장학위원회 운영 계획 5. 한국학 위 원회 운영 여부 6. 나눔위원회 운영 여부 7. 기타 등이 안 건으로 상정됐다.

▶나눔사업 보고(황선희 사회봉사담당 부회장) = 교 1. 평의원 회의를 소개하며 손재옥 회장은 내년도 예산 말을 들을 정도로 감사패 등을 많이 준비했다"는 평가가 육에 대해선 장학위원회가 있는데 비해 나눔에 대해선 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간략한 구상을 제시했다. 그 위원회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각 지역에서 동 는 "Charity(나눔)과 Education(장학) 사업에 15,000불 문들이 참여하는 나눔사업이 왕성한 데 비해 총동창회 씩 배정했다"며 "9만 불로 책정된 회비수입 목표를 달성 차원에서 나눔을 지원하는 움직임이 필요함을 강조했 하는게 현 집행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회보 다. 현재 지부별로 가정상담소, 흑인길거리청년 사역, 탈 등을 통해 이미지를 부각한 덕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동 북자를 위한 활동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나 문들이 회비를 내고 있다며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평하

〈14면에 계속〉

네트웍 심포지 그는 4차 북한 핵실험 문제가 국제적인 동들에게 미국 견학을 시키는 과학탐험 문제인 동시에 "경제적으로 남한 인구가 대 연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왔다. 이러 줄어드는 가운데 한민족의 미래가 걸린

절박한 문제"라고 평했다. 북한은 미국과 중국에 알리지도 않고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주장했고 중국은 최초로 유엔에 서 합의된 강력한 대북제재안에 적극적 으로 나왔지만 그것 또한 확실한 건 아니 다. 현 정부는 성급하게 개성공단을 폐쇄 해버릴 정도로 북핵에 대해 필사적인 입 장이다. 하지만 "북한은 더이상 비핵화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인 정해 달라며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자체 를 거부하는 북한에 대해 한국이나 국제 사회가 할 수 있는 대응방법이 보이지 않 는다"는 문제점을 제시했다.

대선 주자인 힐러리 또한 근본적인 해결 을 위해선 북한과 조건부 협상을 하겠다 는 노선을 취하고 있고 트럼프 후보는 그 건 한국이나 북한, 또는 일본 만의 문제이 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겨 놓자는 입장이 다. 하 교수는 "현재 국제정치에서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을 어찌 다뤄야 할지가 큰 숙제"라고 말하며 "남 한 내부에서 북한을 국내 정치를 위해 사

하용출 교수

한 경험을 통해 그는 "차세대에게 선배들 이 롤모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수직적 관계 형성으로 인해 벽을 만드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 그렇다면 한국과 미주 동문 사회의 전 세대가 융합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김 교수는 "선배들이 먼저 탁월함과 희생 정신을 겸비한 리더가 돼야 한다"고 답했 다. 그저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리더를 넘 어 더 좋은 리더를 길러내는 지도자, 인품 만으로도 사람들이 따르고자 하는 지도 자가 돼야 하는 것이다. 그는 "Pursuing excellence with a servant's heart.(섬김 의 마음으로 우수함을 추구한다.)"를 언 급했다. "5년 앞이 아니라 20년 앞을 보 고 일하며 베풀어야 한다. 공부해서 남 주 자는 마음으로!"

> 수(의대 75, 펜실베니아대 정신건강의학 과)는 보다 학술적인 주제로 심포지엄을 풍성하게 가꿨다. "인간의 마음이야말로

> 마지막 연사로 연단에 오른 한창규 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셰익

김영수 교수

500 단어(글자수 2000자) 내의 글과 필자 사진 한장(고화질)을 보내주세요. '이달 의 사진'과 '서울대 학창시절의 사진'도 보내주세요. 앨범 사진을 스캔하든가, 셀폰(고화질)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모든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시고 동창회에 대한 질문이나, 주소정정, 회비/후원금 등의 사무적인 일은 general@snuaa.org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용헌 교수

원고모집합니다

8월호 특집으로 '보고싶다, 친구야!'를 모집합니다. 정말 보고싶고 그리운 친구 이야기를 50-100단어 정도로 들려주세요. 이 외에도 일반 원고 -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철학, 역사, 문학 등, 다양한 분야로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서울대미주동창회보 267호 | 2016년 7월



제 25차 전국 평의원회 환영사

회장 손재옥

제 25차 평의원회의에 오신 평의원님들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정화 총동창회장님,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서울에서 오신 서울대 총동창회 류연수 부회장님, 김경태 전무님, 성낙인 총장님과 이효원 상임이사님, 신성호 국제협력본부장님 그리고 임경훈 모교 대학신문사 주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교 서울대와 총동창회 그리고 미주동창회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 조직의 발전은 곧 우리 자신의 발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주동문들이 서로 격려하며 미국 주류사회에서 활발히 움직일때 모교 서울대와 총동창회가 같이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미주동창회가 있기까지 매해 평의원회 때에 발걸음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회장님들과 그 임원님들 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심이 있었기에 7,000여 명의 동문들이 미주동창회를 통해서 서로에게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회비와 후원금으로 미주동창회를 후원해 주신 많은 동문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격려에 힘입어 한걸음 한걸음 도약하는 미주동창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13대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을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평의원회의를 통하여 참석하신 모든 동문님들이 각 자가 선 자리에서 서로에게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평의원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동문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25차 전국 평의원회 환영사

차기회장 윤상래

존경하는 미주동창회 평의원님, 동문님,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성낙인 총장님, 이민섭 총동창회 부회장님, 류연수 부회장님, 김경태 전무님, 임경훈 교수님, 역사깊은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미주동창회 제 25차 평의원회의에 참석하심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합니다.

1991년 워싱톤 DC 에서 박윤수 박사님을 초대 회장으로 모시고 발족된 후 4 반세기를 넘기는 미주동창회는, 창 립시의 원대한 꿈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역경을 무릅쓴, 역대 회장단들의 희생과 봉사로 그 기반이 견고 히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주동창회는 "21세기의 세 계 주인" 이라는 미주에 건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미주동창회의 "1 만여명" 동문은 미주 주류 사회의 지도 자로 각 분야에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안타까운 일은, 우리의 미주동창회가 크고 괄목할만한 발전이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느낌이며, 우리의 잠재력을 선용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거대한 잠재력을 열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창립 목적인 모교를 돕는 일이나, 우리 8,700 만 한민족의 염원인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를 이루는데 훌륭하게이바지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처럼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성낙인 총장 님과 서울대 총동창회의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를 드립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통해 우리 모교와, 서 울대 총동창회와, 미주동창회가 협력하여 공동 활동을 펼침으로, 서울대학교가 지향하는 "세계 대학 랭킹 10위 권" 이라는 목표를 조속히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매개 체가 될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저는 또한 이러한 사명감을 통해 이 거대한 미주에 기반을 닦아 왔던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더 되새겨, 우리의 미주동창회가 27개 지역 동창회 간의 유기적인 단합과 연결로 더 큰 발전을 하여, 명실공히 "대 서울대인의 동창회"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필라 방문동안 부디 좋은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며 이에 환영사에 대신합니다.



24 일 금요일 저녁 6 시부터 더블츄리 호텔에서 다음 날 있을 평의원회의 전야제가 80여명의 평의원들과 가 호 국제협력본부장의 모교의 세계적 순위 비교와 평가 족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박형준 섭외국장의 사회 로, 손재옥 회장과 윤상래 차기회장, 전방남 필라지부회 장의 인삿말 후, 참석하지 못한 서정화 총동창회장의 동 영상 격려사를 보았다

특별히 이번 평의원회의를 축하, 격려해주기 위해 한국 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의 복지

전기금 상임이사의 발전기금 모금에 대한 발표와 신성 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성낙인 총장은 가계소득 1분위 이하 학생들 800여명 에게 매달 생활비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선한인재 장 학금'을 소개한 후, 서울대 입학후 경제 사정으로 학업 에서부터 참석한 성낙인 모교 총장의 축사와 이효원 발 🧧 후원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미주동문들의 적극적인

의 환영사에 이어 윤상래 차기회장의 환영사, 그리고 서

정화 서울대 총동창회장의 격려사를 동영상으로 보았

고, 전날 참석했던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의 축사는 박

참여를 권했다.

특별히 천원에 제공되는 식사는 부담없이 모든 학생들 이 이용할 수 있는 가격으로, 이번 10월 본 미주총동창 회의 모교 홈커밍데이 행사에 참가하는 동문들에게 같 은 점심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참가자 모두의 사진 촬영이 있은 후, 서양식 디너와 음 료로 식사를 마친 후, 13 대 임원 및 편집위원들의 합창 이 심회진 동문의 지휘아래 큰소리로 불려진 후 이번 행 사에 가장 어린 참가자인 김지윤 (생명과학 11) 대학신 문 기자(본보 썸머인턴)의 당돌 발랄한 노래와 가장 연 장자인 방은호 (약대 42) 동문의 소개가 있었다. 올해 92 세(24년생)인 방은호 동문은 즉석에서 팔굽혀펴기를 수 없이 반복함으로써 참가자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각 테 이블 마다 주어진 퀴즈를 풀며 '서울대'로 삼행시를 만드 는 등, 약간의 두뇌운동과 지적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여 흥이 재치있는 박형준 사회자에 의해 즐겁게 진행되고, 미주총동창회 본부에서 준비한 22개의 상품권이 다 분 배된 후 평의원회의 전야제가 종료되었다.



25일 토요일 저녁 Calvary Vision Center Lobby에서 Reception 및 Cocktail 파티가 있었다.

박형준(공대87) 동문의 사회로 손재옥 미주총동창회장 형준 동문이 대독하였다.

되었고 손재옥 미주총동창회장의 표창패와 지역동창회 전회장 감사패, 본부 임원 공로패 등이 수여되었다.

다음은 서정화 총동창회장의 표창패와 공로패가 수여

다음 오준 UN대사의 기조연설이 있었고 Bridson Wallaced의 당수도 시범에 이어, 고려인 3세 Yevgeniy Dyo(템플대)의 바이올린 연주, 소프라노 채주원 (음대 09) 동문의 가곡, 한테라(음대 00) 동문의 가야금 병창으 로 이루어진 소음악회로 이어졌다. 특히 채주원 동문의 호소력 있는 폭 넓은 음색은 모든 관객을 사로 잡았고,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단가 '고고천변'을 부른 한테라 동 문의 가야금 병창은 박수 갈채를 많이 받았다. 행사는 해 바라기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 라"를 합창하며 막을 내렸다.

Valley Forge National Historic Park 관광



24일 금요일 오후, 평의원회에 모인 53명의 동문 및 가 족들이 Valley Forge Historic Park을 관광했다.

2016년은 Valley Forge National Historical Park 이 창설된지 100 주년(Centennial)이 되는 해이다. 공원 가이드와 박형준(공대 87) 동문의 안내로 일행은 워싱턴 총사령관의 지휘본부가 있던 Washington's Headquarters에서 그 당시 워싱턴 장군이 사용하던 유품과 가구 등을 볼 수 있었고, 광활한 벌판(5.415 mi2)에 흩어져 있 는 National Memorial Arch (현충문), 독립군들이 묵던 막사 (hut)등을 관람했다.

24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생생한 역사의 숨결을 느 끼며 일행은 푸르른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우

26일 일요일 오후에 서정화 총동창회장 순회배 친선골 프대회가 필라델피아 근교의 Center Square Golf Club 남가주지부 차기회장이 영예의 1등으로 서정화 총동창 에서 필라델피아 골프동호회 한중희(공대 80) 동문에 의 회장배 순회배를 차지했다. 전날 먼길을 달려온 서울의 해 진행됐다.

저녁식사와 함께 진행된 시상식에서 성주경(상대68) 총동창회 이민섭 부회장이 2등을 차지해 골프의 달인임

을 인증했다. 모두가 쟁쟁한 골프 실력을 뽐내며 제25차 미주총동창회 행사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

이번 골프대회의 시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1등: 성주경 남가주차기회장(상대 68), 챔피언쉽: 최 경선 평의원(농대65, 북가주), 2등: 이민섭 총동창회 부 회장(정치학과59), 3등: 오인환 전회장(문리63, 워싱턴 DC), 장타상: 손경택 동문(농대 57, 뉴욕)과 정인식 평 의원(상대58, 뉴욕), 아차상=류연수 총동창회 부회장(잠

한편 필라델피아 동문들은 Philadelphia 라는 이름이 뜻하는 'Brotherly Love'를 몸소 실천해 자신들이 차지 한 1등부터 4등까지의 상을 모처럼 방문한 타지역 동문 들에게 양보하는 미덕을 보였음이 시상식 후 알려져 작 은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Northern Virginia, Washington DC에 서 미주 의과대학 동창회의 연례행사인 Convention이 June 1-5에 열렸다.

미주 전역에서 178명의 의대 동문들과 가족까지 합해서 약 300명에 가까운 인 원이 참석해서 대성황을 이루었다. 1-2 일에 걸친 Pre-Convention Golf가 명소 인 Lans-downe Resort에서 있었고 57 명이 참가했다. 3-4일에는 Medical Scientific Session과 교양과 실생활에 도움 이 되는 Non-CME Lecture가 동시에 진 행되었는데 강의실마다 모두 만원으로 활기를 띄웠다.

저녁에는 감사패 증정, 표창장, 수상, 축 사, 장학금 지불, 공로상 수여, 여흥과 만 찬, 댄스 그리고 퀴즈, 라플티켓 등 다채 로운 순서가 진행되었다. 4일(61명)오후

와 5일에는(41명) Post Convention 여 행이 있었는데 Capital City, Museum 방 문이 있었고 Luray Cavern, 미국 3대 대 통령 Thomas Jefferson 이 살던 Monticello Plantation 방문이 있었다. 여러날 에 걸쳐 다채로운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멀리 인도네시아에서 온 강조웅 부부를 합해서 서울에서도 약 20명의 동문들이 참여했으며 90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오신 동아제약의 강신호 명예회장님과 두산건설의 박용현 명예회장님, 강대희 의대학장님 그리고 김용재 동창회부회 장, 박중신, 조영민 부학장등이 참여했다. 특별손님으로 축사로 손재옥 미주총동창 회 회장, 소설가 이영묵 전회장 그리고 강 사로 참석한 황보한 공학박사, 최도빈, 이 규양 교수들이 우리 서울대 동문들이다.

특이할 것은 인류의 기원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세포내에서 핵이 아닌 부분 의 미토콘드리아에 이변을 주는 환경오 염과 그에 따른 당뇨병 발생에 대한 의 대 이홍규 명예교수의 강의가 눈길을 끌

어머니를 통하여만 전달되는 이 미토콘 드리아에 대한 이 교수의 특강은 오인환 미주총동창회 전회장의 주선으로 행사 중에는 물론 워싱턴 근교의 서울대학 동 문들에게도 특강을 할 기회가 있었다. 바 이칼 호수주민들, 시베리아의 인류의 흔 적, 빙하시대, 네안델타인과의 혼혈, 요하 문명등 황하문명 이전의 문명의 흔적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아 프리카의 서로의 다른 종족끼리보다 유 럽인과 아시아인이 오히려 가까운 핏줄 이라는 유전적 사실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는 모든 연령층이 참여했 으며 최연소로 2011년 졸업, 최고령으로 는 1950년 졸업하신 나수섭 동문으로 61 년 사이의 모든분들이 함께 자리를 같이 한 셈이다. 의대 졸업생 중에는 미주 동 창회 신문에도 글을 올려서 잘 알려진 분 이 많이 있지만 이번 모임에서는 임낙중, 신상균, 김병석, 이원택, 강창욱, 나수섭 님들의 저자책 소개가 있었다. 특히 90세 의 나이에 지난 5월 말 발간한 "A Lone Pine Road" Atonement 를 직접 소개하 신 나수섭 동문이 참석해 모든 분들을 감

11

내년에는 이 Convention이 신임 이건 일 회장단에 의하여 LA에서 3월초에 있 을 예정이다. 많은 동문들이 참여해 주시 글: 서윤석(의대 62) 미주서울의대 총동창회장



12



미네소타 동문회 2016년 봄 아유회가 50여명 의 동문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Falcon Heights Community Park에서 4월 30일에 성황리에 열렸 습니다.

소고기, 양념갈비, 돼지고기, 새우, 소시지 등으로 바비큐 식사를 하며 봄 기운이 물씬 풍기는 공원에 서 대화와 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 온 동

문을 포함 모든 동문들이 각자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서로 인사와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음식용 밀폐용기, 쌀, 키친타올, 김, 라면, 셀카봉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 여러 동문들이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어른들이 숨긴 보물들을 아이들이 찾아 그 안의 간식을 선물로 받으며 즐거워했습니다.

필라델피아 : 심회진 독창회



267호 | 2016년 7월

필라델피아 심회진(음대90) 동문의 독창회가 6월 18일 토요일 저녁 벅스카운티 장로교회당에서 열렸다.

서울예고를 거쳐 음대 성악과를 졸업한 심 동문은 도미 후 Westminster Choir College 에서 성악석사, Temple 대학에서 오페라 석사와 성악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활발한 공연활동과 Temple 대학과 Arcadia 대학에서 강의해 오고 있다.

'사랑'을 주제로 한 이날 독창회에서는 1부에서 R. Hahn, H. Wolf 의 가곡들과 Mozart의 'Exsultate, jubilate, K. 165'를 선사하고, 2부에서는 사랑의 마음을 담은 가곡 '님이 오시는지', '내마음', '동심초'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십자가와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초여름 밤 자리를 가득 채운 청중들의 가슴을 적셨다.

워싱턴주(시애틀) : 세미나 안내



워싱턴주(시애틀) 동창회 시니어클럽(회장 김재훈)이 주최한 'SNU 포럼'에서 한인 생명공학 스타트업회사 'NSB'의 워싱턴대학(UW) 김덕호 (공대

대학원) 교수가 '급변하는 창업환경에서 재미한인 기업 가들을 위한 사업화 전략과 예시' 라는 강연에서 자신의 창업 경험을 나누었다. 지난해 미국 의생명공학회로부터 '젊은 혁신가상'을 수상한 김 교수는 '나노 기술을 이용한 획기적인 세포배양기기'를 개발해 NSB를 통해 상용화했다. 최근 비상근직 CEO로 합류한 마이클 조 변호사는 "시애틀은 '작은 실리콘밸리'로 불릴 정도로 아마존을 중심으로 IT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했다"며 '아이디어, 인력, 자본 세가지 요인에 사업을 육성해줄 보육시스템이 절실하다'며 도움을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 지부는 7월 세미나로 Microsoft 연구소에 근 무하는 정재연 박사의 '스마트홈 보안및 개인정보 보호 (Security & Privacy for Smart Homes)'를 계획하고 있다

> 연락처: 김재훈(공대 72) Jkim1@ieee.org 425-786-7723

워싱턴 DC : 이민섭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워싱톤 순방

이민섭 총동창회 상임부회장이 제25차 미주평의 원회의를 마치고 27일 (월) 오인환 명예회장의 안 내로 워싱톤 DC 지역동창회를 방문해 워싱톤 동 창회 전임회장들과 안선미 현회장과 함께 간담회 를 가졌다.

간담회는 이 상임부회장의 뜻대로 서울총동창회 와 미주동창회 및 지역동창회간의 긴밀한 유대관 계를 통해서 SNUAA 의 SYNERGY를 높혀 보자 는 것이 주제였다. 오는 10월 16일 (10월 셋째 일 요일) 에 열리는 통합개교 70주년 기념 Home-

coming Day 에도 워싱톤 동문들이 많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의 모임은 VA Tysons Corner 소재 우래옥에서 가졌는데 이 상임부회장이 저녁을 대접했다.

《사진 우: 왼쪽부터 안선미 현회장(농65), 강연식(사58), 백순(법58), 유재풍(법60), 함은선(음77), 이민섭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문59), 오인환(문63), 변만식(사49), 방은호(약42), 권기현(사53)〉

마침 이날 같은 우래옥에서 서윤석 미주의대동창회 회 장 주재로 워싱톤동창회 의과대 동문과 부인 모두 15여



명의 모임이 있었는데 이 상임부회장님은 오인환 명예 회장의 안내로 그 모임에 들려 인사와 대화를 나누는 깜 짝 기회가 있었다. 이 상임부회장은 물론 의대동문들도 매우 반가운 시간이었다.

남가주 : 스코필드 박사 100주년 기념



남가주 수의학과 동창회는 지난 4일 박종수 (수의대 58)동문 자택에서 정운찬 전 총장를 초청해 푸른 눈의 독립운동가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 내한 10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일제 강점기 스코필드 박사의 헌신과 독립운동을 기렸다.

: 코랄 단원모집

남가주 동창회 코랄이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나성 영락교회에서 연습하고 있는 코랄은 금년 10월15일 Colburn School Zipper Hall 에서의 정기연주회가 예정되어 있다.

연락: 장진영 지휘자 818-307-7059, 강정자 단장 310-801-4260

북가주 : 등산

2015년 11월 이성형(57.공) 동문의 제안에 따라 미서 부의 대표적인 명승지 Grand circle를 다녀왔다.

동창회 등산 모임인 Zinfandel 회원을 중심으로 관심있는 동문들이 대거 참석하여 50명이 5월 2일 9시 Las Vegas 공항에서 만나 4박 5일 일정을 회기애애한 분위기에 젖어 지냈다. 모두 몇 번씩은 가보았다는 Grand Canyon을 대신해 氣를 받기 위해서 Arizona, Sedona를 택했고, 다음날 환상적인 사진을 찍기 위해서 Page, Lower Antelope Slot, Horseshoes Bend, 서부영화에서 많이 본 대지와 하늘이 만나는 곳 Monument Valley로 갔다. 카메라, 핸드폰이 쉴새 없이 이곳 저곳을 담기에 바쁘고 멋진 배경으로 자기 사진을 찍어 달라 부탁들을 한다.

셋째날은 Arches National Park에서 Delicate Arch, Devil's Garden에 있는 Landscape Arch를 다녀 온 후 Canyonlands로 이동 Grand view, Mesa Arch를 탐사하며 이날 20,000步 이상을 걸었다. 처음부터 여행사에 등산을 목적으로 일정을 잡았기에 일반적으로 여행사에서 증명사진 찍는 그런 여행이 아니고 등산도 겸한 우리만을 위한 맞춤형에 가까운 일정이었다.

나흘째 날은 외계인 혹은 금성을 배경으로 한 영화의 촬영지로 '도깨비 공원'이라는 Goblin State Park을 신기한 눈으로 보고 서부에서 제일 좋다는 드라이브 코스인 24번, 12번 하이웨이를 지나는 동안 Capitol Reef 국립공원에서 잠시 쉬고, 언제 보아도 황홀한 Bryce 국립공원에서 석양을 보며 Queen's Garden Trail를 걷고 다음날 새벽찬란한 여명을 바라보며 작은 소망을 빌었다.

닷새째 날은 남성미가 넘쳐 흐르는 Zion National Park에서 일부(6명)는 Emerald Pool Trail를 걷고 대부분의 일행은 Shuttle Bus로 Virgin River를 따라 조성된 Zion Canyon Scenic Drive를 즐긴 후 Las Vegas로 향하며 일정을 마쳤다. 이번 여정을 함께한 동문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

참석한 동문: 강정수, 김갑균, 김근창, ,김모한, 김철 규,노상규,이성덕, 이성형, 오명주,전승일, 정조웅, 정지선, 하춘근, 한만섭, 홍경삼. 이외 몇명이 더 있으나기제하지 못함

글, 사진 홍경삼(문리대 61, 전 동창회이사장)

샌디에고 : 골:

동문회 골프대회가 6월 11일 (토) Castle Creek 골 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풀이 저녁을 만포에 서 골프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동문들과 가족들이 함 께 하였습니다.

참가인원은 예년에 비해 다소 줄었으나, 많은 동문들의 회비, 장학금, 기부금 덕분에 동문회 재정에 도움도되었고 푸짐한 저녁식사도 즐기며 간단히 자기소개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서정용 부회장의 골프대회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의 챔피언은 윤진수 동문 (의대 57)이 차지하였고 (상품: 챔피언 트로피+골프백), 롱 기스트는 이문상 동문(공대 62), 니어리스트는 염두 호동문(공대 57)과 이미자님(이창섭 동문 (공대 57) 배우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시상식 후에 서정용 부회장이 다가올 카약 행사에 대해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서 최흥수 회장이 별보기 행사에 대해 홍보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이번 골프대회 및 저녁식사에 참석해주신 동문 및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Castle Creek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이번에 동문회 골프행사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평철(상대 64)/한숙례 동문가족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골프 행사를 잘 준비하느라 힘써주신 서정용 부회장 (공대 81) 및 다른 임원진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모임은 7월 중순 또는 하순경에 Joshua Tree Na-tional Park에서 캠핑겸 stargazing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렇게 한번 추진 해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후기작성: 이정석 부회장)

골프 대회 참석 동문: 총 17명 (존칭 생략): 황성현 (공대 56), 임춘수 (의대 57), 윤진수 (의대 57)/윤정숙, 염두호 (공대 57), 김현철 (의대 57), 이미 자 (이창섭 동문 (공대 57) 배우자), 신영규(의대 57), 이문상 (공대 62), 한평철 (상대 64) / 한숙례, 최귀복 (공대 72),강동원 (수의대75), 조윤형 (자연대 79), 서 정용 (공대 81), 오충훈 (공대81), 이정석 (공대 87)

골프대회 뒷풀이 저녁 참석 동문: 총 32명(존칭 생략) - 골프대회 참석동문 17 명 + 저녁식사 참석 동문 15 명:염숙자 (염두호 (공대 57) 동문 배우자), 임소영 (임춘수 (의대 57) 동문배우자), 신성현 (신영규 (의대 57) 동문 배우자), 이창섭 (공대 57), 전원일 (의대 77)/전현숙, 박상호 (치대 80)/최영희, 심상철 (공대 81)/심미리,김주성 (농대 83), 임용갑 (공대 84), 최흥수 (자연대 87), 이인태 (공대 94),박성주 (인문대 95)





시카고

: 골크

시카고동창회(회장 정승규(공대60)) 회원 30여 명이 지난 21일 오 크브룩 소재 윌로우 크레스트 골프클럽에서 봄맞이 골프모임을 가지 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 피크닉

6월 11일, 맑게 개인 하늘 아래 시카고 동문 가족들이 Great Lake Side 에서 피크,닉을 가졌다, 02, 06 학번 등 관악세대와 부 모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평의원회 상보 (7면의계속)

2. 차차기 회장 후보 공고에 대한 공지가 이어졌 다. 현재 미주동창회 회장은 2년을 임기로 가지며 올해 말까지 공고를 통해 차차기 회장 후보를 한 명 이상 내놓아야 한다. 이번 평의원 회의에서 인 선위원을 마저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남가 주 김병연 회장, 뉴욕 민준기 회장, 하틀랜드 이상 강 회장이 추천을 통해 인선위원으로 더해졌다.

3. 한인동포 위암예방을 위한 메디컬 캠페인의 정체성에 대한 토론이 오갔다. 비영리단체인 동 창회 회칙과 해당 사업의 정체성이 부합하는지, 실제 캠페인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진 않은지에 대 한 지적이 있었다. 서울대 의대 미주 총동창회 서 윤석 회장은 "의료 관련 정보나 영상 등으로 정보 를 줘도 충분하다"고 첨언했다. 이에 메디컬 캠 페인은 실질적으로 중단하자는 데 평의원들의 뜻 이 모였다.

4. 찬성과 동의를 거쳐 모교발전기금 위원장으로 7명이 연임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새로 활성화 되는 장학위원장인 손재옥 회장이 세칙에 따라 위 원을 구성하기로 결정됐다. 미주재단이라는 조직 으로 세금등록번호를 따로 운영하다 보니 발전기 금이나 장학금 지급에 있어 과정이 복잡하고 용 어가 헷갈린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 해 미주동창회라는 타이틀을 중복시키기보다 미 주 전체에서 이뤄지는 장학 사업 등을 모아 알리 자는 제안도 나왔다. 작은 규모로 활성화되는 장 학위원회를 통해 지원해나가자는 데 여러 의원이

5. 작년 평의원회의의 의결에 따른 한국학연구소 설립안의 재론은 철회되었고 대신 한국학 연구를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오인환 회장의 의견에 대해 김정현 위원장이 "장학 위원회를 활성화해 그 안에 동아리형태의 한국학 모임을 두자"는 제안을 했고 가결되었다. 오전 세션에서 언급한 브레인네 트웍 제도화에 한국학을 연동해도 좋을 것이라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6. 나눔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제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현 사회봉사담당 부회장을 중심으로 나눔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칙을 만들어 회칙위원 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7. 회의 끝 무렵에서 크고 작은 건의사항들이 나 왔다. 웹사이트를 자주 사용해 클릭수를 올리고 재 정독립을 이루자는 의견, 1년 단위로 회보에 대한 여러 설문조사를 진행하자는 것, 평의원 회의록을 웹사이트에라도 꼭 공개해달라는 요청 등이 이어 졌다. 더불어 손재옥 회장은 미디어 비디오 사업으 로 미주총동창회의 활동과 평의원 회의를 보다 투 명하게 알리면 좋을 것이라는 제언을 했다. 그는 " 이번 25차 본회의는 김지윤 동문을 통해 비디오 작업을 시도해보려 한다"고 알렸다. 평의원회 소 식과 사업 계획을 많이 공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자리였다. 또한 허유선 특별사업국장이 10월 16일부터 진행하는 홈커밍데이에 대한 마무 리 공지를 했다. 그는 "총장으로부터 17일에는 일 일 학생 배지를 달고 규장각 등 캠퍼스 탐방을 한 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2박 3일 즐거운 프로그램 들을 준비 중이니 미주동창회 모두가 함께하길 바 란다"고 전했다.

(이 공지는 회의 마지막날 총동창회 사절단으로 참석한 이민섭 총동창회 부회장으로부터의 약속으 로 모교 호암교수회관에 10개의 방을 무료로 제공 받고 서울관광도 무료로 제공받게 되었다).

Let's go HOMECOMING DAY together 개교70주년

홈커밍데이 참가 안내

모교 서울대학교가 통합개교 70 년 고희를 맞이하 였습니다.

제 13 대 미주동창회에서는 이 뜻깊은 행사에 모교 국제협력본부와 총동창회의 지원으로 10월 15일 부 터 17일까지 아래와 같은 2박 3일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내 시기 바랍니다.

〈일정안내〉

아침 서울 시내 관광 (총동창회 제공 선착순 24명) 저녁 만찬 (미주동창회장 제공)

숙소 호암 교수회관 체크인 (총동창회 제공 방 10개)

일요일 16일

홈커밍데이 행사

저녁 만찬 (모교 총동창회 제공 장소: 호암교수회관)

월요일 17일

오전 자유시간

점심 식사 (학생식당) (총장실 제공) 관정도서관과 박물관 투어 (총장실 제공) 호암 교수회관 체크 아웃.

*모든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미주 동문님들 의 편의에 따라 편리하신 시간에만 참석하실 수 있습

> 문의 : 허유선 특별사업국장 973-865-1749 general@snuaa.org

평의원회의 수상자

서정화 총동창회장 표창패

봉사: 이수호 (보건대학원 69)

참여: 박종수 (수의대 58)

서정화 총동창회장 공로패

박혜옥 (간호69) - 남가주지부

민준기 (공대59) - 뉴욕지부 이의인 (공대68) - 뉴잉글랜드지부

송요준 (의대64) - 록키마운틴지부

이장우 (문리72) - 북가주지부 김주성 (농대83) - 샌디아고지부

김용주 (공대69) - 시카고지부

백대현 (상대77) - 오레곤지부

이성우 (상대72) - 오하이오지부 이원섭 (농대77) - 워싱톤주지부

정경완 (자연83) - 유타지부 강창석 (의대73) - 조지아지부

전방남 (상대73) - 필라델피아지부 서윤석 (의대68) - 의대총동창회장

손재옥 미주동창회장 공로패/감사패

학술 : 김경일 (공대58) 봉사 : 김병국 (공대71) 참여 : 홍선례 (음대70)

지역동창회 전회장 - 감사패

조해석 (공대84) - 미네소타지부

오윤환 (문리56) - 애리조나지부 윤재중 (농대54) - 알라스카지부

장경태 (사대75) - 워싱턴DC지부 박재현 (자연81) - 테네시지부

윤기향(법대65) - 플로리다지부 이상구 (자연78) - 캐롤라이나지부

성낙일 (문리77) - 하와이지부 이상강 (의대70) - 하틀랜드지부

최인섭 (공대75) - 휴스턴지부

본부임원 공로패

김정현 (공대68) - 편집위원장 정홍택(상대61) - 주필

박형준 (공대87) - 섭외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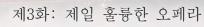
한중희 (공대80) - 사업국장 고병은 (문리55) - 고문

허유선 (가정대83) - 특별사업국장 심회진 (음대90) - 총무국장

이제니 (사무장)

*오인환 (문리63) - 12대 전회장





15



장용복 (공대 58)

정해야 속이 시원한 것이다. 오페라에서도, 현존 2만8천 편 중에, 제일 훌륭한 오페 라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예술 작품을 어찌 일이삼등으로 가를 수 있으라. 오페라를 평가할 요소도 많지만 어느 요소가 딴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우리는 무엇이 제일 좋고,

누가 가장 잘 났고, 누가 제

일 잘하는지 알고 싶어 한

다. 지난 올림픽 수영 경기

를 보는데, 눈으로 결정할

수 없으니까 카메라를 이용

하여 일이삼등을 정하는 것

이었다. 일등과 이등의 차이

가 겨우 손 한 뼘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짜르트의 〈돈 조반니(Don Giovanni)〉가 제일 훌륭한 작품이라는 데는 별로 이의 가 없다. 베토벤은 돈 조반니가 그 내용이 부도덕하다고 해서 모짜르트의 〈피가로의 결혼(Le nozze di Figaro)〉 을 더 쳐주었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지 정하기가 힘들다. 평가자의 취향도 다르다.

〈돈 조반니〉는 모든 남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바 람둥이 돈판(Don Juan)의 이야기다. 오페라가 시작되기 전에 벌써 스페인 여인 1,003명, 이태리 여인 640명, 독 일 여인 231명, 프랑스와 터키 여인 각각 100명과 91명, 도합 2,065명의 여인을 정복했다. 아름다운 여인은 감언 이설로, 검은 눈동자는 친절로, 푸른 눈동자한테는 청원 으로, 겨울에는 살 찐 여인, 여름에는 마른 여인, 키 큰 여인은 거칠게, 작은 여인한테는 간교와 장난기로, 노처 녀는 그녀의 환상을 몽롱하게, 그 기교가 다양하다. 이 명단에 몇 명을 더 추가하려다가 실패하는 것이 그 줄

이 바람둥이는 결국 지옥의 사자에 끌려 불바다로 들

어 간다. 모짜르트가 지옥의 사자를 다룰 때 자신의 엄 격한 아버지를 연상하였으리라 추측들을 한다. 아버지 의 허락 없이 결혼을 하였고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 게 방탕한 생활을 하였기 때문이다. 영화〈아마데우스 (Amadeus)〉에서 잘 묘사되고 있다.

이 오페라의 서곡에 관한 일화를 소개한다. 이 서곡은 오페라 초연 바로 전날밤에 작곡하였다. 사실은 그동안 에 머리로 작곡을 해 놓았던 것이다. 머리 속에 들어 있 는 총보(score)를 베끼기만 하면 되는데, 저녁 때 나가서 마신 술 때문에 졸음이 너무 오는 것이다. 부인 콘스탄 자한테 부탁을 한다.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계속 해 달라 고, 그리고 졸면 꼬집어 달라고. 동이 트고 사본가가 왔 을 때 끝을 맺었다.

이것이 그의 작곡 방식이다. 반면에 베토벤은 평생에 〈 피델리오(Fidelio)〉한 편만 작곡했는데 세번이나 고쳤 다고 한다. 그래서 문인들이 썼다 지웠다 하면서 쓰는 스 타일을 베토벤 식이라하고 머리속에서 정돈을 다 해놓 고 쓰는 것을 모짜르트 식이라고 한다.

모짜르트는 12살 부터 오페라를 쓰기 시작하였다. 제 일 먼저 작곡한 것이 〈바스틴과 바스틴네(Bastien und Bastienne)〉이다. 놀랍게도 이 가극 서곡의 주제가 베토 벤의 교향곡 3번 첫번째 주제와 같다. 우연일까? 아니 면 베토벤이 모짜르트 것을 표절했을까? 둘이 우연하게 도 어느 알려지지 않은 음악을 이용하였으리라는 추측 이 더 유력하다.

앞으로 아리아(aria)를 많이 소개하려 한다. 아리아란 독창곡을 뜻한다. 주연 가수들이 한 막에 한두개 씩 부르 게 작곡을 해 왔다. 그래서 한 오페라에 10곡 이상 나온 다. 아리랑을 예로 들어 용어를 풀이해보면:

(A)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 (B)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 난다. A는 칸타빌레(cantabile)라고 하는데 천천히 부른다. 서정적(lyric) 창법이다. B는 카발레타(cabaletta)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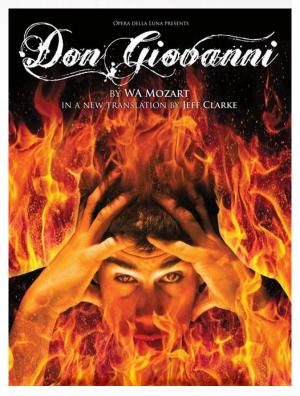


사진: 지옥의 사자에 끌려 불바다로 들어가는 돈 조반니

하는데 빠르게 부르면서 멜로디에 장식 음을 많이 붙여. 화려하다. 색깔을 많이 칠한다. 해서 콜로라추라(coloratura) 창법이라고 한다. 가수들이 실력 발휘하는 곳 이다. 모짜르트와 벨 칸토 시대에는 A와 B를 부르고 나 서 A를 또 불렀다. 이렇게 처음을 반복하는 것을 다 카포 아리아(da capo aria)라 하고, 반복이 없이 부르는 것을 카바티나(cavatina)라고 한다. 아리랑 같이 짧은 곡은 아 리에타(arietta)라고 한다.

애석하게도 베르디 말기부터 오케스트라에 비중을 점 점 더 주게 되어 바그너 말기에는 아리아가 거의 없어지 다시피 되었다.

백순 교수 팔봉문학상 수상

재조명

팔봉문학상위원회 (박윤수(문리대 48) 회장)가 5일 한 미과학재단에서 시상식을 열고 백순(법대 58) 버지니 아 워싱턴대 교수에게 2016년 팔봉문학상을 시상했다.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시상식에는 팔봉 김기진 선생의 딸 김복희 여사를 비롯해 위원회 관계자, 워싱턴 문인들이 참석했다. 송찬호 시 '장미' 낭독, 바리톤 최인 달 제임스 매디슨 교수의 축하 음악 '국군은 죽어서 말 한다'로 문을 연 행사는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박윤수 회 장의 초청사 대독, 오인환 전 미주 서울대동창회장의 축 사로 이어졌다.

김복희 여사는 '칼의 노래' 저자인 김훈 작가가 언론인 시절 팔봉 김기진에 대해 쓴 찬사를 대독하며 아버지 팔 봉을 추억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 2016년도 팔봉문학상을 수상한 백

순 교수는 "팔봉의 작품을 처음 알게 된 건 중학교때 동 아일보에 연재되던 '통일천하'를 접하면서부터였다"며 "팔봉 김기진 선생은 소설을 많이 썼지만 그에 못지 않 게 신랄한 평론들을 내며 평론가로서도 활발히 활동했 다. 이 상을 받게 돼 큰 영광"이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 다. 백순 교수에게는 김복희 여사가 기탁한 500달러의 상금이 시상됐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팔봉의 소설 '해조음'을 재조명 하는 리딩 행사가 열렸다. 이영묵(공대 59) 작가의 주도 로 한복 등 해조음 속 시대상을 반영하는 의상을 갖춰 입은 4명의 성우들은 각자 등장 인물을 맡아 해조음 제1 장을 낭독해 큰 환호를 받았다.



이 작가는 "팔봉은 당시 한국인의 고달픈 삶을 해조음을 통해 조명함 으로써 '깨어나라'는 메시지를 전 하고 싶었던 듯 하다"며 "그를 기 념하고 그의 문학세계를 회고하기 위해 이번 리딩 행사를 준비했다" 고 밝혔다.

서울대미주동창회보 서울대미주동창회보 267호 | 2016년 7월 267호 | 2016년 7월 16

나의 worst and best 여행은 honeymoon 중의 한 날이다.

우린 LA 공항에서 차를 렌트해서 라스베거스, 후버댐, 자이온 캐년 등을 돌고 내가 중학교때부터 꿈에 그리던 그랜드캐년을 보는 것이었는데.. GPS도 없던 그 시절 지도만 보고 마구 달려가 밤 12 시 넘어서 우린 그랜드캐년의 한 파킹랏에 도착

만국기가 흔들리는 파크안의 호텔은 당연히 너무 비쌀거라 생각에 차안에서 자기로 했다.

새벽에 눈을 뜨고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장관을 보고, 호연지기, 독야청청, 청렴결백, 현모양처로 살리라 다짐을 했다. 너무 미안해 하는 남편 머리 (아..그때는 머리카락이 있었지) 몇번 쓰담아주며 "it's so ok" 라고 하고 만국기 휘날리는 호텔로 아침 먹으러 갔더니... Off the season 이라 많이 비어있었 던 방들이 값도 너무 쌌더라는..

아...인생의 최고는 항상 best 와 worst가 공존 허유선(가정대83)





부활절 봄방학을 라스베가스에서 보내 겠다는 큰아들 내외의 말에 '자연 속을 멀리하고 도시의 문명 속으로 호객하고 있는 환락과 도박의 거리 그 곳에 가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온단 말인 가? 하는 생각이 들어 6살 손자와 함께 LA 근교 최고봉인 Mt. Baldy의 8부능선 덮인 산길로 오르고 내려왔다.

"할아버지! 여기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아요"라는 말에 "그래 고맙다, 그 마음 변하지 말라"고 하며 나의 어린 산골 시절을 떠올렸다. 내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인심은 조석변이요 산색은 고금동' 이라는 한시를 설명하며 '산사람이 되어

그 마음 변치말라'고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활의 산행을 감사드리며 월요일 개학 하던 날 큰손자의 하교시간에 산행 기념사진을 한아름 안고 담임선생님을 만났다. 손자를 안듯이 가까이 속삭이는 에 위치하고 있는 그린하우스 산장까지 눈 선생님의 표정에서 봄방학 산행이야기에 감동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날 손자는 유일하게 선발되어 반 학생 들 앞으로 나아가 산행 체험기를 발표할 기회를 누렸다고 하였다.

> 그래서 큰아들에게 이번 부활절을 가장 잘 보낸 사람은 부활의 산행을 좋아하는 큰 손자라고 하였다. 김석두(농대 58)

갑자기 강 건너에서 사람들의 외침소리가 들렸다. 뭐지? 눈을 들어 바라보니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짓을 하는 게 아닌가? 무슨 급박한 일이 벌어지나? 뒤를 돌아보니 어디서 나타났는지 북한 병사 둘이 총을 겨누며 나를 향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뭐라고 소리를 치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얼마나 미끄러운지..

눈덮힌 산 속에 움막을 치고 추위에 떨며 숨어살던 30 여명 탈북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등이 카메라 속에 들

잊지 못할 휴가

산 마르코 광장*의 의자

손명세 (공대 60)

17

출발을 알리는 뱃고동 소리만 퀭한 하늘에 금을 긋고 가는 산 마르코 광장의 풀어진 와류(渦流) 속에 비둘기 숫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온 종일 비둘기들과 자리 다툼을 한다

피곤하고 짐진 자들이 지친 다리들을 걸어 놓고 마음을 뉘일 수 있는 노천카페는 성당이다 한 잔의 커피잔에 풀어 놓는 하루의 고해성사

> 무거움을 털썩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의자 온 종일 온갖 치부들을 어루 만져주던 의자 하나님이다



*이태리 베니스의 산 마르코 대 성당과 높은 종탑이 있는 대광장

휴가는 아니었어도 90년대 한국 체류 시의 모스크바 출장이 기억에 남는다. 매달다가 무게를 못 이기어 떨어트려 깨진 채로 땅 위에 그대로 있는 초대형 종, 너무 무거워서 시험 발사 한번 못해 본 거대한 포탄과 그 옆에 놓여 있는 대구경 대포등을 보며 "이러한 우직한 면이 오늘의 유럽을 만든 것이다"하는 생각이 들었었다.

주말에 가 보고 싶은 곳을 묻는 러시아인 과학자에게 내가 러시아의 자연 을 보여 달라고 했더니 정말 끝도 없이 펼쳐진 빽빽한 숲 한가운데로 나를 안내하는 것이었다.

사방 몇십 마일내에 인적이라곤 전혀 없어 오싹해질 만큼 조용한 숲 속 에서 그 가운데를 흐르는 밑바닥이 환히 보일 정도로 맑은 강물을 보며, 미국 말고는 맞설 나라가 없을 만큼 앞서가는 첨단 과학기술과 태곳적 원시 그대로의 자연을 동시에 갖춘 러시아의 무한한 잠재력이 느껴져 정말 부러웠다. 그 여행은 그때 느꼈던 부러움과 함께 지금도 기억에



손주들의 첫 바다여행 6살.4살. 수영하겠다고 속에 수영복을 입고 갔습니다. 막상 새까만 바닥으로 밀려오는 파도를 보며 물속에서 "와....!!!!"하며 달려가더니 둘이 손을 잡고 서있었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의 표정이 상상되는 뒷모습을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 Hana black sand beach에서 (간호대 70 이순희)



길림성 연길 공항에 내리니 바깥 온도가 영하 26도 (섭씨) 라고 누군가 말했다. 찬공기 밤바람이 얼굴을 송곳처럼 찌른다.

며칠 후 도문(圖們, Túmén)엘 갔다. 북한 땅이 바로 건너다 보인다. 생각보다 폭이 그리 넓지 않은 두만강 을 건넌 나는 하얗게 얼어붙은 땅사이로 비집고 나온 마른 풀들을 쓰다듬어도 보고. '여기가 북한땅이라니!' 라는 감격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절대절명의 순간.

어떡하지? 잡히면? 무조건 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저들이 총을 쏘면 혹시 빗나가는 경우, 강 건 너에 있는 사람들에 맞을 수 있게끔 내 자신을 움직 였다. 그들은 불과 10여미터 가까이로 다가 왔고, 난 죽기살기로 뛰는데, 얼어붙은 강위로 덮힌 눈때문에

어떻게 잡히지 않고 살아돌아왔는지, 난 알 수 없다. 그때 잡혔더라면?

어있는데..

(그리고 나서 몇년 후 겨울, 나처럼 우연히 두만강을 건 넜다 잡혀간 두사람의 미국 기자들을 클린턴 전 대통 령이 데리고 나온 뉴스가 있었다.)

김정현(공대 68)

서울대미주동창회보 서울대미주동창회보 267호 | 2016년 7월 267호 | 2016년 7월 18

였습니다.

운이 느껴집니다.

모르겠습니다.

LA에 내려와서 산 지 이제 8년이 되어

갑니다. 버클리에서 LA에 왔을 때 제 인

상에 처음으로 강력하게 남았던 것은 복

잡한 프리웨이, 줄지어진 높다란 야자수, 그리고 TV에 나오는 뉴스 앵커들의 화

려한 의상과 부담없이 재미있는 분위기

같은 캘리포니아지만 북가주와 남가주

의 분위기는 많이 달랐지요. 그런데 LA

는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도시입니다. 눈

부신 햇살, 그 아래 여러 민족들이 어우러

지는 역동적인 분위기 속에 자유로운 기

LA CH是干完一 哗啦社型到色에서 多时叶生花

서 근 25년만에 처음으로 지어진 대성당 이라고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가 좋 아하는 스페인 건축가의 건물을 미국에 서 볼 수 있게 되어 2002년에 오픈하길 학수고대하던 기억이 납니다.

한선정의 미 서부 건축 기행

이 건물의 진수는 육중한 매스와 그 사 이에 조각되어진 틈과 창을 통해 빛이 투 과되며 느껴지는 공간감과 종교적인 거 룩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네오는 거 리에서 직접 성당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Temple Street 에서 들어오는 방문객들은 하단의 광장, 커다란 계단, 또 다른 상부의 광장을 거 쳐야만 25톤의 브론즈로 만들어진 성당 의 문에 비로소 들어서게 됩니다.



1. Disney Concert Hall (Frank Gehry 설계)

건축 설계 일을 하면서 여행을 많이 다 녔습니다. 보고 느끼는 것이 건축을 공부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명목 하에 여 기저기를 누비고 다녔지요. 과거에는 우 리나라 지방 산천 곳곳과 유럽 등을 다녔 는데 지금은 미국에 와서 넓은 미국 땅 을 다 보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동 창회보를 통해서 LA를 시작으로 하여 미 국 서부 건축 기행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무심코 지나쳤던 주변의 건 물들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 기행시리즈에서 재미난 실마리를 줄지도

처음 이야기는 LA 다운타운부터 시작 하려 합니다. LA 다운타운을 상징하는 건물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Frank Gehry 가 설계한 Disney Concert Hall(사진1) 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Frank Gehry는 미국서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축가이지만, 세계적인 거장 으로 인정되고 있는 미국을 대표하는 건 축가입니다. 1978년에 지은 그의 산타모 니카 자택은 주름진 금속판과 체인링크 (chainlink)가 서로 대립되고 충돌되는 형태로 디자인되어 주목을 받았지요.

이후로 계속 실험적인 방법을 발전시키 면서 최근에는 건물의 외피가 천과 같이 유연하게 이어져 만들어지는 형태를 추 구합니다. 2003년에 완공된 디즈니 콘서 트홀의 금속 외장 판넬은 하나하나가 모 두 다른 곡선과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 는 원래 프랑스 항공회사의 프로그램인 카티아(catia)에 의해 가능했습니다. 게 리 건물의 특징은 겉으로 화려해 보여서 형태위주의 디자인이라는 선입견을 갖기 가 쉬운데, 실제로 건물 안에 들어가보면 공간감이 풍부함을 느낍니다. 실제로 게 리 사무실에서는 실내공간 디자인을 위 해 실제 모델 스터디를 많이 하는 것으로 도 유명합니다.

다운타운의 또 다른 유명한 건축물중 에 스페인 건축가인 Rafael Moneo가 지 은 Our Lady of Angeles Cathedral(사진 2)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어질 당시 세 계에서 3번째로 큰 대성당이며, 미국에





2. Our Lady of Angeles Cathedral 외부(위), 내부(아래) (Rafael Moneo 설계)



3. Caltrans (Morphosis 설계)



4. Nokia Theater와 Ritz-Carlton호텔이 있는 LA Live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성당내부 공간입 니다. 아침의 햇살이 다르고 늦은 오후의 햇빛에 따라 성당내부의 빛의 향연이 달 라집니다. 그동안 프리웨이를 통해 무심 코 지나보시기만 했다면 한번은 꼭 가보 시기 바랍니다. 건축적인 감동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운타운의 또 다른 명물은 2004년 Morphosis에 의해 설계된 Caltrans(사 진3)건물입니다. LA시청 건너편에 도시 한 블록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이 건물 은 Caltrans District7의 본사건물로서 California Design Excellence Design Program에 의해 주도된 첫 번째 건물이 라고 합니다. Morphosis는 UCLA 건축학 과 학장을 하기도 했던 Tom Mayne이 설 립자인 회사인데, Gehry와는 달리 건물 의 외피(skin)디자인에 주력합니다.

Tom Mayne은 LA에 기반을 둔 세계 적인 건축가로서 건축의 최고의 상인 Pritzker Prize을 수상했습니다. 이 건물 은 일종의 트랜스포머(transformer)입니

외부의 유리벽이 double skin구조로 되 어 있어, 유리벽 안에 구멍이 난 알루미늄 판넬이 있습니다. 이 판넬이 태양과 기후 조건에 따라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 면서 건물 파사드의 투명도는 시시각각

멀리서 보면 잘 알 수 없지만, 이 건물의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은 친환경적으로 설 계된 외부벽 디자인에 있습니다. 남쪽 벽 은 전부 태양열에너지를 만들수 있는 솔 라셀로 만들어져 건물의 5%의 전력을 공 급합니다. 전반적으로 쭉쭉 뻗은 역동적 인 형태는 캘리포니아의 프리웨이를 상 징한 것이라고 하네요.

이 밖에도 최근에 다운타운에 지어진 건 물로는 Nokia Theater와 Ritz-Carlton 호텔이 있는 LA Live(사진4)가 있습니 다. LA Live Complex는 오랫동안 조용 했던 LA 다운타운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 도 밤에 한 번 LA Live를 찾고 깜짝 놀랐 습니다. 마치 한국의 명동을 다니는 기분 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인 De Stefano 에서 했던 Concerto콘도는 다운타운에 서 몇 안 되는 최근에 건설되는 프로젝 트 중의 하나였습니다. Loft건물과 타워 건물 하나는 완성이 되고 가운데 포디엄 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경 제 상황으로 다운타운의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유보되고 있는데, 앞으로 경제가 어서 회복되어 비전들이 실현될 수 있기 를 바랍니다.

[문학]

Saul Bellow의 작품 세계



임봉기 (공대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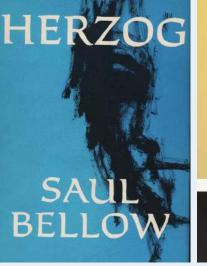
서 그의 소설에 대한 평론 이 많이 실렸었다. 특히 저자의 대표작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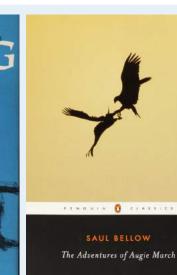
low의 탄생 100주년이라

'Herzog'와 준대표작인 'The Adventure of Au-

국 소설가인 Saul Bel-

고 하여 지난 5월에 New 조모는 러시아 페테르부르그에서 활동하다가 캐나다를 Yorker지와 주요 신문에 거쳐 미국으로 밀이민하였고 그 사정이 두소설에서 자 세히 잘 표사되어 있다. 이 두 소설을 읽으면 유태인 특 히 러시아에서 살던 유태인들의 깊은 사색을 같이 느끼 Isaiah Berlin과 유사한 뿌리를 가졌다고 할까.





금년이 노벨상 수상 미 두작품을 읽어 보았다.

of Augie

Bellow The Adventures

게하는 마력이 있는것 같다. 지난 번에 소개한 철학자

gie March'를 미국소설의 극치라고 까지 칭송하여 적 이혼을 둘러싼 정신적 갈등을 그린데 반하여 'Augie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바이다.

March'는 초기 작품이으로 작가의 젊은시절의 성장 과정을 잘 그린 이른바 미래지향적 소설이라고 할 수 저자는 Chicago 에서 성장한 유태인 이민자. 부모와 있으며 이 두작품에서 저자의 나이에 따른 생각과 표 현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서술의 방식이 복잡하고 일상표현의 수 준이 사색적이라 쉽게 읽히지 않는 소설 중의 하나 이다. 본인은 몇 년 전에 저자의 다른 소설 'Dean's December'를 처음 대하면서 (대표작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농도 깊은 사색과 철학에 감탄한 바 있는데, "Herzog'는 작가의 후기작품으로 교수 생활과 비극 두 소설역시 실망을 주지읺는 심각한 작품이므로 뜻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6.25 전쟁이 났습니다. 아 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집 지키고 있어" 하시고는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가 셨습니다. 그 당시 내 여동생은 다섯 살이었고 남동 생은 젖먹이였습니다. 인민군 치하에서 한달이 넘게 고생하며 살아도 國軍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견디다 못해서 아버지를 따라 남쪽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우리 삼형제와 어머니는 보따리 를 들고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 남쪽으로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일주일 걸려 겨우 걸어서 닿은 곳이 평 택 옆 어느 바닷가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人心이 사나워서 헛간에도 재워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집 흙담 옆 골목길에 가마니 두장을 주 워 펴놓고 잤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우리는 개천 에 가서 작은 새우를 잡아 담장에 넝쿨을 뻗은 호박 잎을 따서 죽처럼 끓여서 먹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담장 안집 여주인이 나와서 우리가 호박잎을 너무 따 서 호박이 열리지 않는다고 다른데 가서 자라고 하 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우리를 껴안고 슬피 우 시더니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남쪽으로 내려 갈수 없 으니 다시 서울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기다리자고 하 셨습니다. 다음날 새벽 어머니는 우리들이 신주처럼 소중하게 아끼던 재봉틀을 들고 나가서 쌀로 바꾸어 오셨습니다. 쌀자루에는 끈을 매어서 나에게 지우시 고, 어머니는 어린 동생과 보따리를 들고 서울로 다 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평택에서 수원으로 오는 산 길로 접어들어 한참을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른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이 내 곁에 붙으면 서 '무겁지 내가 좀 져 줄게' 하였습니다. 저는 고마워 서 '아저씨 감사해요' 하고 쌀자루를 맡겼습니다. 쌀 자루를 짊어진 청년의 발길이 빨랐습니다. 뒤에 따라 오는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으나 외길이라서 그냥 그 를 따라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갈라지는 길이 나 왔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놓칠까 봐 '아저씨, 여기 내 려주세요. 어머니를 기다려야 해요' 라고 소리쳤습니

D D

다. 그러나 청년은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따 라와' 하고는 가 버렸습니다. 저는 갈라지는 길목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청년을 따라 가면 어머니를 잃을 것 같고 그냥 앉아 있으면 쌀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당황해서 큰소리로 몇 번이나 '아저씨!' 하고 불렀지 만 청년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주 저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한 시간쯤 지났을 즈음 어머니가 동생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길가에 울고 있는 저를 보시더니 첫마 디가 '쌀자루는 어디 갔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 는 청년이 져 준다면서 쌀자루를 지고 저 길로 갔는 데, 어머니를 놓칠까봐 그냥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리 고 한참 있더니 내 머리를 껴안고 '내 아들이 영리 하고 똑똑해서 에미를 잃지 않았네' 하시며 우셨습 니다.

그날 밤 우리는 조금 더 걸어가 어느 농가 마루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에 가셔서 새끼 손가 락만한 삶은 고구마 두 개를 얻어 오셔서 내 입에 넣 어 주시고는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아버지 를 볼 낯이 있지'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그 위기에 生 命줄 같았던 쌀을 바보같이 다 잃고 누워 있는 나를 영리하고 똑똑한 아들이라고 칭찬稱讚 해 주시다니... 그 후 어머니에게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는 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것도 결국은 어머니에게 기쁨 을 드리고자 하는 소박한 욕망이 토양이었음을 고백



편집자 註: 이 이야기는 모교 박동규 (문리대 57)명 예교수의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박동규 교수의 부 친은 박목월(朴木月) 시인이고 이 글 중의 어머니는 모친 유익순님이십니다. 박동규 선생님은 모교 졸업 직후 편집자가 다니던 중학교에서 국어(작문)선생님 으로 재직하셨고 후에 모교에서 교수생활을 하시다 은퇴하셨습니다.



^[신간] 이태상 작가의 희망메시지

'꿈꾸다 죽거라'



포세대라 부른 다. 3포세대란 연애, 결혼, 출 산 세 가지를 포 기한 우리사회 의 젊은 세대를 일컫는 말로 취 업난과 불안정

한 일자리, 그리고 높은 집값을 이유로 3가지를 포기했다는 뜻이다.

요즘의 젊은 세대가 포기한 것이 세 가

출구가 없는 취업난 탓에 이상을 잃고

그저 안정적인 직업만을 쫓는 젊은이들 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꿈을 잃고 안 정적인 직업을 찾아 공무원과 고시에 도 전하는 수험생들은 이미 포화상태다. 이렇게 꿈과 희망 없이 살아가는 젊은

이는 힘든 주변 환경 탓에 '이번 생은 세대들에게 작가 이태상이 희망의 메시 망했다'고 자조적으로 말하는 젊은 세대 지를 던졌다. 에게 던지는 희망과 소통의 메시지이기

'자연과 인문'이 출판한 이태상의 신간 〈꿈꾸다 죽거라〉에서는 이 시대의 젊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꿈의 중요성과 꿈 의 재발견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한다.

이태상은 책 '꿈꾸다 죽거라'를 통해 인 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의 불완전성과 완전성 사이에 놓인 무 지개와 같은 것이 꿈이라고 말하며, 그렇

즉, 어둠이 있기에 빛이 있고 죽음이 존 재하기에 삶이 있듯이 '이생망' 대신 '이

생흥', 즉 이번 생은 흥했다고 말 할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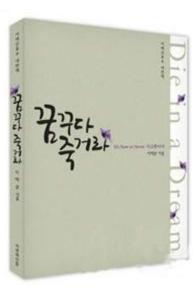
기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꿈을 가지고 살

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부족함이

있기에 채움이 있는 것이고, 내리막이 있

기 때문에 오르막이 있다고 서술했다.

이렇듯 꿈을 향한 따뜻한 이야기로 채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워진 이태상 작가의 책 '꿈꾸다 죽거라'를 통해 젊은 세대는 물론 꿈을 잃고 살아가 는 모두에게 다시금 꿈과 희망의 메시지

Antonio Vivaldi

버림받은 여자 아이들을 가르친 비발디



최은관 (상대 64)

에 베니스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성 마가 성당에 서 바이올린 연주자였고, 아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 쳤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 에게는 신부가 되는 것이 공짜 교육을 받는 유일한

1703년, 25살에 신부로 서임을 받았지만, 천식이 있 어 미사를 올리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교회에 속 한 피에타 병원(Ospedale della Pietà)에서 바이올린 선생으로 임명받았다. 붉은 머리털 때문에 붉은 신부 라고 알려졌다.

1. 버림받은 아이들과 병원

베니스에는 버림받은 아이들을 돌보는 병원이 넷 있 었다. 처음에는 십자군을 돌보는 병원이나 호텔 역할 을 했는데, 세월이 흘러 역할이 달라졌다. Ospedale degl'Incurabili (불치자 병원)은 매독 환자, 고아, 창 녀들을 받았고, Ospedale della Pietà는 버림받은 아 이들을 받았으며, Ospedale di Santa Maria는 집없는 아이, Ospedale di San Lazarus e dei Mendicanti 는 문둥병자를 돌보았다.

베니스에는 사생아를 이 병원에 버리고 가는 사람들 이 많았다. 당시 창녀의 수는 2만 명이나 되었다. 귀 족들이 애인과 낳은 私生兒를 집에서 기를 수 없어 이 고아원 내지 병원에 흔히 맡겼다고 한다. 병원에는 그 런 여아들이6천 명이나 있었다. 이런 아이들을 받는 스카페타(scafetta, 아기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일종 의 서랍)가 문 앞에 있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어 머니가 병원의 벨을 누르고 아기를 스카페타에 놓아 두고 도망가면, 직원이 나와서 아기에 대하여 비밀 기 록부에 상세히 기록하고, 이름을 지어 주고 왼쪽 팔뚝 에 P-자 (아마도 Pietà의 두문자)의 낙인을 찍었다.

이 아이들은 음악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고, 재주 있 은 아이들은 여아였고, 이들은 요리사, 청소부, 바느 다.

질 따위의 일을 배웠다. Figlie del coro (합창단의 딸) 에 계속 남는 여자들은 음악 학교처럼 연주와 작곡 훈 련까지 받았다. 이 아이들은 음악회가 있을 때 베일 뒤에서 공연하고 대중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중 앞 에서 여자들이 공연하는 것을 부도덕하다고 마땅치 않게 생각했다고 한다.

여자 아이들은 자라서 결혼하든지 수녀원에 들어갔 다. 물론, 병원은 이 여아들을 잘 교육시켜 좋은 남편 을 찾아 주려 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사진: 어느 무명의 이탈리 화가가 그린 유일한 비발디 초상화. Civico Museo Bibliografico Musicale Bologna (볼로냐 시립 음악문헌 박물관)

세 번째 길은 병원의 합창단에 음악 봉사자로 (inservienti della musica) 남는 것이었다. 자기보다 더 교육받은 여자를 아내로 얻으려는 남자들이 베니스 는 소녀들은 합창단에 들어가 정기적으로 공연하였 에 드물었고, 여자들은 합창단에서 경제적으로 자립 다. 합창단의 인기가 높아지자, 버림받지 않아도 음악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여인들은 1년에 최소한 재주가 있는 아이들도 받게 되었다. 대다수의 버림받 100리라(lira), 오늘날의 임금으로 약 \$2000을 벌었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가 멘디칸티 (거지) 병원에서 공연한 "천사같이 아름다운 여인"들 을 만나보니, 대개가 가난하고 얼굴이 추한 여자들이 었다고 한다. 어떤 여인은 끔찍하게 생겼고, 어떤 여 인은 외눈박이였고, 어떤 여인은 점투성이었고, 얼굴 이나 몸에 흠이 없는 여자 아이는 거의 하나도 없었 다고 한다.

2. 비발디의 작곡 정신

1714년에 합창단 지휘자 가스파리니가 사임하였고, 그 자리를 이어받아 비발디는 이후부터 교회 음악을 작곡하게 된다. 다른 음악가들은 영감이 떠오르면 작 곡하였다. 이와 반대로 비발디는 버림받은 여자 아이 들을 가르치려고 작곡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여자 아이들은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비 발디는 음악 교육을 시켜 긍지를 심어 주었고, 훌륭 한 음악가들로 길렀다. 여러 아이가 솔로로 연주하 는 부분이 있도록 여러 악기를 사용했다. 비발디는 각 여자 아이의 특성을 잘 알았고, 이를 살리기 위하 여 작곡했다.

예를 들면 오페라 그리셀다(Griselda)는 지로(Giro) 를 위하여 작곡했다. 오보에를 위한 곡이 여럿이 있는 데, 펠레그리나를 위하여 작곡한 것들이다. 펠레그리 나는 베이스(bass)로 시작했다가, 바이올린 연주자 가 되었고, 나중에 오보에(oboe)를 불었는데, 62세가 지난 뒤에 다시 바이올린으로 바꾸었다. 이가 다 빠져 서 오보에를 불 수 없었기 때문이다.

1740년에 베니스가 불황을 겪게 되자, 피에타 병원 의 작곡가 자리를 사임하였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 제 찰스 6세(Charles VI)를 만난 뒤에 그의 후원을 받 아 비에나로 이사했으나 도착하기 전에 황제가 곧 죽 었고, 비발디에게 가난이 닥쳤다. 가난이 그의 죽음을 재촉한 듯하다. 그는 비에나에서 얼마 있다가 1741년 7월 28일에 죽었다.

좋은 생각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다.

비발디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여자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으로 긍지를 심어 주고 희망을 주었다. 그런 고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길렀으니, 하나님이 하늘의 음악 을 내려 주어도 아깝지 않았을 것이다. 비발디는 하늘 의 음악을 얼핏 들었는지도 모른다.



금년 (2016년) 7월 4일로 미국 독립 선언 240주년을 맞아 미국 건국의 조상들(Founding Fathers of the U.S.)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은 한 분을 소개합

EDDERNE

BF17237501 *

THIS NOTE IS LEGAL TENDER FOR ALL DEBTS. PUBLIC AND PRIVATE

MHM

U.S. Treasury Department는

전무식 (수의 61) 20불 지폐의 앞면 초상 인물인 제7대 대통령이었던 Andrew

Jackson 을 2020년(미국의 여성 참정권 획득 100주년 이 되는 해)부터 흑인 노예 Abolitionist였던 Harriet Tubman (1820-1913)으로 바꾼다고

발표했습니다. New York Times 는 이를 "흑인 여자 노예가 백인 남 자 대통령을 쫓아내게 되었다"라고 익살 스럽게 보도했습니다. 사실은 10불 짜리 지폐의 앞면 초상 인물 인 건국 초대 재무장관, Alexander Hamilton (1755-1804) 을 먼저 대 체하려고 했지만 여론의 반대로 인 해 해밀턴의 초상은 그대로 앞면 에 두고 여성 참정권 운동가 (the women's suffrage movement activist) 5명과 Treasury Building 을 10불 지폐의 뒷면에 넣기로 결정한

금년 (2016년)이 알렉산더 해밀턴 사후 212년이 되는 해인데 그는 아 직도 엄청난 Media Spotlight 를 받

고 있다. 유명한 전기 작가인 Mr. Ron Chernow 가 저 술한 〈Alexander Hamilton〉이라는 책이 New York Times 의 Non Fiction 부문에서 Best Sellers 에 올라 있고 이책을 근거로 만든 LinManuel Miranda 가 제작 하고 주연하는 Broad Way Musical, 〈Hamilton〉은 앞 으로 일년치 티켓이 이미 매진되었으며 온라인 상에서 입장권 한장이 천삼백 달러에도 구입하기가 어렵다고 뉴욕 타임스가 전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얼마전 특별 전용기를 타고 뉴욕시를 찾아와서 이 Musical 을 관람하고 깊은 감명을 받아 주 연배우인 Miranda와 출연자 모두를 백악관에 초대해 서 대접을 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이처럼 해밀턴의 인기 가 식을 줄 모르는 이유는 그의 출생과 성장, 연애와 결 혼 그리고 독립전쟁 당시에는 워싱톤 장군의 수석 보좌 관으로 전쟁 후에는 건국 초대 재무장관으로 당시 이 미 67세의 노인으로 병약했던 대통령을 대신해 사실상 국무총리 역활을 수행하며 새연방정부가 정착할 수 있 도록 눈부신 활약을 했기 때문이다.

초대 재무장관으로서 거의 독단적으로 제조산업 육성 과 중상주의(Mercantilism) 정책을 펴서 오늘날 미국이 군사 및 경제적으로 초강대국이 되는 기초를 닦아 놓았 으며 필라델피아와 보스톤 다음으로 세번째 정도였던 뉴욕시를 제일 큰 도시로 또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되는 터전을 세웠기 때문이다.

사실 해밀턴의 소망은 뉴욕시를 런던이나 파리처럼 정 치와 경제 및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그의 정적이었던 토마스 제퍼슨 등이 뉴욕 시를" Hamiltonopolis" 라고 야유해서 부르기도 했었다.

Alexander Hamilton

그의 불행한 죽음(당시 현직 부통이었던 Aaron Burr 와

결투(Duel)후유증 때문) 과 그의 생애 전체가 오늘날 우

리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해밀

턴은 1755년 1월 11일 British West Indies(Caribbean

Islands)의 영국식민지였던 작은 섬 "Nevis"의 수도

Charlestown 에서 프랑스 개신교 신자 의 모계와 스코

홀어머니와 형 하나와 함께 어렵게 살다가 어머니마저

일찍 전염병으로 요절하자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었으

며 친척집에서 지내던 어느날 미국인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그의 소개장 하나만 들고 Nevis 섬의 많은 Busi-

nessmen들의 도움으로 배삯을 마련해 보스톤행 화물

선에 승선하게 된다. 장장 3주간의 긴 항해 후 18세의 어

린 나이로 뉴욕 항구에 도착했다. 그 후 다행히 Hercules

Mulligan 이라는 든든한 후견인을 만나게 되고 그의 도

움으로 그 당시 명문 사립학교인 Elizabethtown Acad-

emy 라는 대학 준비 예비학교에 들어가게 된다. 이 학

교는 훗날 그를 총으로 쏘아 죽인 Aaron Burr (1756-

틀랜드 출신의 부계 사이에서 사생아로 출생했다.

1836)가 이미 졸업을 했던 학교로서 그와의 처음 조우도 이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같은 학교를 졸업했으나 Burr는 이미 Princeton 대학 으로 갔고 해밀턴은 후에 King's College(현 Columbia University)에 입학한다. 대학 재학중 독립전쟁에 자원, 참전했으며 후에 와싱턴 장군의 막료(대령, 훗날 소장 으로 진급) 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큰 공헌을 했 다. 또 와싱턴 장군의 부관으로 있을때 장군의 친한 친 구로 뉴욕주에 부호이면서 막강한 군벌 가문의 Philip Schuyler 소장의 둘째 딸, Elizabeth Schuyler 와 신분 을 초월한 열열한 연애와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된다. 그 후 초대 재무장관으로 신생 정부가 정

착하는데 눈부신 활약을 했다.

1784년에 이미 'Bank of New York' 을 창설했고 1791년에는 해 밀턴의 제안으로 'The Bank of The United States'를 필라에 그 본부를 두고 8개의 Branches 를 8 개 도시에 각각 설치해 일반 상업 업 무와 federal fund 를 각 처에서 저 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방정부의 재무 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치를 취

재무장관을 사임한 후에는 뉴욕주 에서 명망 높은 변호사로, 그리고 뉴 욕주를 대표하는 하원의원으로 연방 정부의 권한을 대폭 늘리자는 Federalist Party 를 창설해서 토마스

제퍼슨의 주정부의 권한을 더 신장 하려던 Republican Party 에 대항하는 다수당의 지도자로서 미국 헌법의 의 회 통과를 위해 활약을 하는 등 많은 정치적 업적을 남 겼다. 해밀턴은 불행히도 젊은 나이에 횡사를 당해서 그 의 원대한 꿈과 이상을 모두 펼쳐 보지도 못하고 갔지 만 우리와 같은 이민자로 신생 미국의 Military Leader, Economist, Political Scientist, Lawyer, 및 Journalist 와 Government Official 로서 건국 초기의 어느 대통 령 못지않게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비명에 간 불세출의 Founding Fathers 중 한 분이었다.

참고로 그가 남기고 간 몇개 어록을 소개한다.

- 1) "Those who stand for nothing fall for anything" 2) "National debt, if it is not excessive, will be to
- 3) "Why has government been instituted at all? Because the passion of men will not conform to the dictates of reason and justice without constraint.



모든 학생들의 꿈을 키워가는

RESERVE NOTE

THE UNIVER STATES

OPAMBRICA

BF17237501 *

ADD AMINE

선한 인재 장학금 모두가 함께 응원합니다!

선한 인재 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는

선한 인재 장학금 이렇게 지원합니다.

가계소득 1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학생 전원에게 매월 생활비 30만원. 연간 360만원 지원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서울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식모금 기관입니다. 선한 인재 장학금으로 꿈을 키워가는 학생 여러분의 수기를 보내주세요.

T. 02-880-8004 F. 02-872-4149 E. snuf@snu.ac.kr URL.www.snu.or.kr

[영화]

ANGEL-A

: 진부한 주제를 진부하지 않게 푸는 영화.



박준창 (인문대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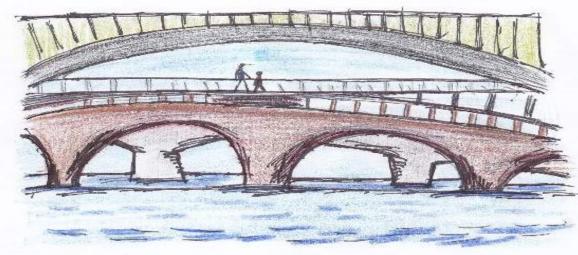
나는 메시지있는 영화는 싫 어한다. 그런데 이 영화는 메 시지가 있는 정도를 넘어 너무 뻔하다. 그러나 너무나 진부한 메시지를 진부하지 않은 방법 으로 전개해 나가서 재미있다.

주인공은 아무데도 쓰잘데없 는 외팔이 모로코 출신 아랍 인.. 이름은 Andre Moussah.

그는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빌려 쓰고 갚지를 못하고 있다. 그는 사채업자들로 부터 빚 독촉에 시달려 돈을 구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 보지만, 누구도 그에게 도움 을 주지 않는다. 낙담한 그는 세느 강 위 한 다리에 올라 가 투신 자살을 하기로 한다. 다리 난간에 기대어 뛰어 내리려는 찰라 옆의 다리 난간에서 한 여자가 뛰어 내린 다. 이것 저것 생각할 여유없이 그도 뛰어 내려 여자를 구한다. 구해 놓고 보니 이 여자 젊은데다 금발의 팔등신 미인이다. 이름은 Angela. Moussah는 도대체 이런 여자 가 왜 자살을 시도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그런데 이 여 자가 걸작이다. 그녀같이 예쁜 여자는 다른 불쌍한 사



한 것. 그러면서 자신은 Moussah가 심성은 좋은 사람 임을 Moussah 자신이 스스로 깨닫게 도와주려고 왔다 고 한다. 결국은 Moussah도 천사와 같다며. Angela는 Moussah 자신을 거울에 비쳐보게 하고서는 자긍심과 자애를 가르친다. 마침내 Moussah는 거짓말하지 않고 용기있게 진실을 말하는 법을 깨닫고 실천한다. 이런 과 정에서 둘 사이에는 사랑이 싹튼다. 하지만 Angela는 자



[세느 강에는 다리들이 참 많다. 겹겹의 다리들을 배경으로 걸어 가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인상적이다.]

람을 도와야 하며, Moussah는 불쌍한 사람이니 자신은 Moussah의 것이고 Moussah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하겠 단다. 이 말을 안 믿는 Moussah는 시험삼아 입을 맞춰 보라고 한다.. 그런데 Angela 는 입맞춤도 모자라 한번 더 해줄까 라고 까지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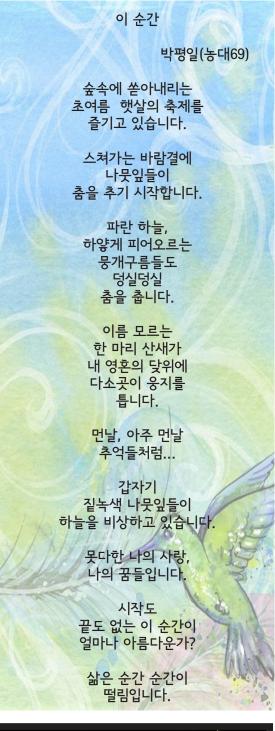
이 둘은 같이 사채업자를 찾아간다. 다시 사정해 보려 고. Moussah가 얘기하는 동안 Angela는 초미니 스커 트를 입은 것도 모자라 긴 두 다리를 쩍 벌리고 흔들며 앉아있다. 언더웨어가 드러남은 물론이다. Angela에게 만 정신이 팔려 있던 사채업자는, Moussah를 남겨두고 Angela를 데리고 그의 위층 서재로 올라 가는데… 그러 더니 나타난 Angela는 빚이 다 해결되었다면서 Moussah에게 돈까지 준다.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런데 급한 빚은 해결되었지만, 또 다른 빚을 또 해결 하지 않으면 안된다. Angela는 이 빚 해결을 위해 또 나 선다. 하룻밤만에 돈을 다 마련하는데 방법은 간단하다. 나이트 클럽에 가서 거기 있는 모든 남자와 Angela가 화 장실에서 매춘을 하는 것이다.

이상하게 여긴 Moussah가 누구냐고 다그쳐 물으니 마 침내 Angela는 자신이 천사이며 Moussah를 돕기위해 하늘에서 내려왔음을 밝힌다. 영화 제목 Angel-a에서 보듯 이름이 Angela인 것은 당연 천사임을 나타내기 위 신의 사명이 완수되어 떠나야 할 때임을 알고 슬픔과 감 격의 눈물을 흘린다. Moussah는 사랑을 고백하는데 이 번엔 Angela가 문제다. 천사도 인간같이 막상 자신의 내 면은 보지 못하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정체성의 갈 등을 겪고 있으니…

Angela와 Moussah는 가히 미녀와 야수라 할만하다 볼품없이 작고 초라한 외팔이 아랍인. 180 cm가 넘는 장신의 금발 미녀. 둘이 같이 서면 키 차이가 훨 난다. Angela는 하이 힐까지 신고 있으니. 천사가 순진하고 착 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라서 재미있다. 줄 담배 에, f-word를 우습게 사용하는, 언더웨어를 다 보여주는 입으나마나한 초 미니에, 남자 여럿 잡아 먹을만한 정말 조선시대 한국인이 보았으면 도깨비라 하기에 충분한 큼직큼직한 생김새. 변칙적인 천사로 해서 관객의 눈은 즐겁다. 다만, 너무 교육적이고 주입식이다. 잘 생기지도 못한 주인공을 두고 예쁘다 좋다를 말하게 강요한다. 계 속적으로 한 주제를 얘기하다 보니 영화 후반부로 가서 는 너무 같은 얘기를 반복하기도 한다. 이런 결함에도 불 구하고 이 작품은 기대 이상의 잘 된 소품이다. 일부러 흑백으로만 찍었고 흑백인데도 배경으로 파리의 세느 강과, 다리와, 에펠탑을 아름답게 보여준다.

프랑스 영화 팬들이라면 좋아하실 영화. 너무나 우리 가 잘 아는 Luc Besson 감독의 2005년 작.



지난 5월 29일 저녁 11시 10분 에, 제2대 남가

주 회장을 지내

셨던 이 우근 선

배님(성악 50

학번)께서 향년

86세를 일기로

하늘나라로 가

셨기에 삼가 부

고드립니다.



남가주원로음악인 회장 / 나성영락교회 명 예장로 / 성악가 / 국립오페라단 창단멤버 및 단원 / 35년간 성가대 지휘 / 오페라 춘희, 춘향전 라보엠등 기타 20여편 주역으로 공 연 / 남가주음악가협회 회장 역임 / 헐리우 드 샤만 음악학교 교수 / 벧엘장로교회 성 가대 지휘자 / 파사데나에서 BELL CANTO 성악 개인지도 / 2000년 6월 18일 고희 독 창회(Colburn Ashool of Performing Arts, Zipper Hall)

전화: (626)282-9977 Cell: (626)202-9737 주소: 305 San Marcos St. Unite C San Gabriel, CA 91776



시인 신경림은 백석의 시집 '사 슴'을 읽은 저녁, 밥도 반 사발밖 에 못 먹고 밤을 꼬박 새웠다고 감격을 고백한 적이 있다. 백석 M게는 '현대시 최고의 절창'이 최고의 시인이라고 단언한다.

일반인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시인을 물으면 윤동주 려는 문인들이 많다는 얘기다. 시인 안도현은 잘 알려 생각할 때 비탄감에 젖지 않을 수 없다. 진 '백석 키즈(Kids)'다. 안도현은 대학 1학년 때 백석 의 시 '모닥불'을 읽고 나서 "백석은 나의 사부다"라고 외친 뒤 지금까지 그를 흠모해왔다.

람을 만나고 싶다는 말은 백석 이후엔 이미 죽은 문 만들 뿐이다. 장"이라고 극도의 존경심을 보였다.

그렇게 30년 이상 백석을 뜨겁게 숭모해온 안도현이 이번에 400페이지가 넘는 '백석 평전'을 냈다. 안도현 의 감각적인 해설로 파란만장한 백석의 일생이 펼쳐 다. 자야는 최고의 요정집 '대원각'의 주인이 된다. 90 진다는 서평이다. 책을 주문해놓고 이렇게 설레는 마 음으로 기다린 적 없다.

를 거쳐 함흥 영생고보에서 영어선생을 하며 작품활 냈다. 백석이 사망한 지 3년 뒤 자야도 세상을 떴다. 동을 했다. 일제의 징집을 피하기 위해 만주를 떠돌 다 해방 후 고향으로 내려갔다. 소위 '재북 문인'이 된 것이다. 이런 딱지 때문에 한국 문단에서는 그의 이 하니 살어가도록 태어났다"고 노래하며 좌우의 편가 름이 지워졌다가 1988년 해금조치와 함께 처음 존재 프기를 시로써 거부했던 백석. 오늘날 분단시대에 우 가 알려졌다.

북한에서는 조만식 선생을 도왔다는 등의 이유로 우

"천억이라도 그의 시 한 줄 값도 안 되리"

분단시대에 백석을 사랑한다는 것은

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남 익문인으로 분류돼 창작활동을 금지당했다. 방향을 에서 잊혀지고 북에서 버림받은 흔 아동문학이 주체사상과 어긋난다는 비판에 부닥 천재시인으로도 불린다. 소설가 처 개마고원 근처 삼수갑산으로 사실상의 '유배'를 당 이원영 (사회대 81) 송준은 그를 한국이 낳은 세계 해 염소를 기르며 노후를 보내다 1996년 84세로 쓸쓸 한 생을 마감했다.

일제, 해방공간, 전쟁과 분단이라는 현대사의 굴곡을 와 김소월이 가장 많지만 시인들에게 물으면 주로 백 고스란히 안으면서 한 시대를 풍미한 천재시인이 왕 석이 꼽힌다고 한다. 백석의 시세계를 존경하고 배우 성한 창작욕을 불사르지 못하고 시들어간 그의 삶을

나는 시를 잘 즐기지도 못하고 문학적 감수성도 미천 하기에 시인들의 상상력을 예찬할 수준도 못된다. 시 를 직접 지어본 적도 손에 꼽을 정도고, 쓰고 싶은 욕 백석이 사랑한 여인 '자야'에게 바쳤다는 시 '나와 나 망이 생겨난 적도 거의 없다. 그런데 백석의 시를 읽 타샤와 흰 당나귀'는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으면, 그것도 소리 내며 낭독하면, 백석 같은 시를 쓰 사랑해서 오늘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로 시작된다. 안 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댄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다 도현은 이 시구를 놓고 "첫눈 내리는 날, 사랑하는 사 만 이래서 사람들이 절창, 절창 하는구나 하는 생각

백석의 러브스토리도 영화 같다. 사랑한 여인 '자야'(본명 김영한)는 기생이었다. 남북이 갈리는 바람에 자 야는 남에, 백석은 북에 남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한 년대 중반 그녀는 당시 시가 1000억 원이 넘는 이 건 물을 법정 스님에게 양도해 길상사로 태어나게 한다. 아깝지 않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이(백석)의 시 백석은 평안도 정주 출신이다. 일제 말 신문사 기자 한 줄 값도 안 된다"는 말로 평생 품었던 연심을 드러

>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 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또다른 통일 염원이 아닐까.

〈언론인, 한의학 박사〉

나와 나타샤와 힌 당나귀

23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홀로 쓸쓸히 앉어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힌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히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는 아니 올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히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데서 힌 당나귀는 오늘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마가리는 오두막집이라는 뜻)

[문화산책]

칵테일 상식-세리스 5



김창수 (약대 64)

아일리시 위스키(Irish Whiskey)는 아일랜드에서 생산되는 위스키를 말한다.

그 원료나 제조방법이 스 카치 위스키와 비슷하다. 다만 원료인 맥아를 건조 할 때 토탄(Peat)를 사용하 지 않기 때문에 스카치 위 스키의 독특한 탄 맛이 없 을 뿐이다.

아이리시 위스키는 주원료인 엿기름과 보리, 호밀 등을 발효해서 만든 술을 대형 단식 증류기를 이용해서 세 번 증류한 후 3년 이상 저장 숙성시킨 것이다. 위스키의 제조 방법이 아일랜드에서 스코틀랜드로 건너갔다는 말이 있 을 정도로 아이리시 위스키의 전통은 오래됐지만, 그 생 산량이나 판매량은 스카치 위스키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제일 유명한 아이리시 위스키는 제임슨(Jameson), 부시 밀스(Bushmills) 등이다. 제임슨은 1780년부터 양조되기 시작했으므로, 그 역사가 236년에 이른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러시아인과 한국인처럼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커피에도 위스키를 타서 마신다. 아이리시 커피는 아이리시 위스키에 뜨거운 커피를 부은 다음 그 위에 크림을 얹은 음 료로, 알코홀이 금방 증발하는 것을 막으면서 커피 와 위스키의 혼합된 맛을 즐길 수 있도록 되어있다.

캐나디안 위스키(Canadian Whisky)는 라이 (Rye:호밀)와 옥수수로 만든 위스키를 섞은 블렌 디드 위스키이다. 그 원료가 어메리칸 위스키와 유 사하나 그 제조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증류 직 후에 불렌딩을 하기 때문에 같은 도수의 알코홀을 함유하고 있어도 비교적 그 맛이 가볍다. 같은 스 니얼(Jack Daniel's)처럼 테네시주에서 만든 위 키치 위스키라도 J&B나 커티샥이 딴 스카치의 맛 에 비해 가벼운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캐나디안 위스키에서 인기가 있는 것은 캐나디 안 클럽(Canadian Club), 시그램 VO, 시그램 크라 운 로얄(Seagram Crown Royal) 등이다.

어메리칸 위스키(American Whiskey)는 미국내 (Evan Williams, 판매량 2위), 1792등이 유명하 에서 생산되는 위스키로, 버번(Bourbon)과 테네시 다. (Tennessee) 위스키가 이에 속한다.



버번 위스키는 미국 켄터기주 버번 카운티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켄터키 위스키로도 불린다. 버 번 위스키는 옥수수를 51% 이상 사용해 80도 이 하로 증류한 뒤 화이트 오크의 안쪽을 불에 그슬 려 만든 술통에 2년 이상 숙성시킨 술이다.

재료에 따른 구분이기는 하지만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버번 위스키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어메리칸 위스키를 버번 위스키라고 한다. 잭 대 스키를 테네시 위스키라고 하지만, 모두 어메리 칸 위스키에 속한다.

버번으로는 와일드터기(Wild Turkey), 짐빔 (Jim Beam, 판매량 1위), 메이커스 마크(Maker's Mark), 노아스밀(Noah's Mill), 이반 윌리엄스

〈CPA, 경영대학원 68, 논설위원〉

267호 | 2016년 7월



서울대병원(원장 서창석)은 간담췌외과 장진영(의대 88) 교수팀이 국내 최초로 복강경 및 로봇 수술 장점을

올해 봄, 50년 만에, 모교를 빙

문하여 약 2개월간 체류할 기호

가 있었다. 신설한지 10년이 되

는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해 달리

는 모교 발전기금 본부의 부탁

도 있었고, 또, 내 남편의 장서

를 중앙 도서실에 기증하는 것

을 계기로, 모교에서 의약학 역

사 특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

련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모교는 지난 50년동안 실로 괄목할 발전을 가져왔다.

우리가 학교에 다니던 1960년도에는 유화수소 냄새가

나는 정성분석 실험은 군용으로 지어진 막사에서 했는

데, 오후 5시가 지나면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서, 학생

들이 제때에 실험을 끝내지 못하면, 알코홀 램프를 켜

서 시약을 찾으러 다녀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후배들

이 최신식 건물 속에서 실험을 하고 강의를 들을 수 있

이 뿐만이 아니라 서울대에는 약 800,000의 장서를 자

랑하는 중앙도서실, 그리고 핵 폭탄에도 파괴할수 없이

지어졌다는, 우리 역사의 고서를 지니고 있는 규장각이

며 곳곳에 숨어있는 최신식의 아름다운 건물들은 한국

인의 막강한 건축능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물론 이런 교

정은, 미국이나 유럽의 고색이 창연한 전통적인 대학들

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MIT나 미국의 어느 주립대

그리고 넓은 잔디밭과 연못, 그리고 잘 배치된 land-

scape등도 멋지다. 포스코에 자리잡은 운동 시설도 미

국의 어느 health club에 뒤지지 않았다. 4월에는 때마

침 곳곳에 피어나는 개나리와 진달래, 그리고 라일락등

단돈 1,000원이면 먹을수 있는 중식과 석식까지도 제

공하는 구내식당, 그리고 각곳에 산재해 있는 여러 식당

들과 카페와 서점등을 볼때,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학생들

이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을 누리며

을 모으면... 어떤일이 벌어질까?

적용한 하이브리드 수술방법으로 췌십이지장절제술을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췌장 및 담도에 발생하는 종양은 해부학적 수술이 어 려워 복강경 수술이 극히 제한적이다. 췌십이지장절제 술은 절제하고 남은 췌장관, 담도, 소장 등을 모두 연결 해야 하는 고난도 수술이다. 합병증 발생과 사망률이 높 아 일부 전문의만 시행할 수 있다.

장진영 교수팀은 복강경과 로봇수술 장점을 결합한 하 이브리드 수술법을 도입했다. 다각도 접근과 여러 기구 사용이 용이한 복강경으로 빠르게 절제한다.

췌장관, 담도를 소장에 연결할 때는 로봇을 이용한다. 로봇 수술은 3차원 고해상도를 기반으로 10배 이상 확 대 영상을 제공해 정교한 문합이 가능하다.

장진영 교수는 "로봇을 이용하면 개복 수술과 유사한 근치적 절제를 시행할 수 있고, 복강경 수술에 비해 정 확하고 안전하게 장기를 연결한다"며 "환자 빠른 회복 과 미용적 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 말했다.

(장 교수는 2010년부터 국내 학자로는 처음으로 국제 췌장암 전구병변 및 췌장낭종 진료지침 수립위원회 위 원으로 위촉되어 미국췌장학회에서부터 공식적으로 활 동하고 있다)

(전자신문)

[오피니언]

간담췌외과 교수



오세경 (약대 61)

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다.

살고 있는 느낌이었다.

이 교정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었다.

게 되었다.

모교 캠퍼스에 문제있다

관악 캠퍼스를 다녀와서

그러나, 이 모든 좋은 점을 무마시키고도 남을 나쁜점 은 미비한 오수처리에 의하여 풍기는 악취였다. 사실 이 악취는 너무도 강도가 높아서 관악 캠퍼스에 퍼져있는 그윽한 라일락 향기나 은은한 진달래의 향기를 맡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캠퍼스를 산책하는 것조차도 고역 이었다.



이런 경험은, 마치 누가 나를 환기가 되지 않는 화장실 에 가두어 놓고 질식시키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어느 관계당국자의 말에 의하면, 이런 결점을 시정하자 고 누차 건의하였으나,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고 하면서 현지인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보이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쓸데없이 비용을 낭비할 수 없다고 일축하 였다고 한다. 아마도 현지인들은 이런 악취에 마비가 되 어서 더 이상 불쾌하다고 느끼지 않는 모양이다.

이런 악취 현상은 비단 관악 캠퍼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서울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문 제였다. 경제적으로 비교적 잘 산다고 하는 강남의 서초 구에서도, 또 구식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종로구에서도 느낄수 있는 문제였으나, 관악 캠퍼스가 훨씬 나쁜 상 격게 될 것이다. 태이었다.

원래 서울대학이 자리잡고 있는 봉천동은 주민들이 가난한 곳이어 서, 담당구역의 예산 부족으로 인히 여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인지, 아니

면 약 30,000명의 교수와 학생들이 군집해 있기 때문인 지, 그 연유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열악한 환경을 두고 세계의 석학들을 불 러다 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수 있을가를 운운한다는 것은 상당히 가소로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쓰레기 통에서는 장미가 필 수 없다"는 유럽 인들의 조롱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이런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비단 나뿐의 문제가 아니었 다.어느 택시 기사의 말에 의하면, 서울을 방문하는 미군 들이, 그들의 코가 이런 악취에 절여진다고 불평한다고 한다. 사실상,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중국인 들은 이런 문제에 개의치 않고 한국을 방문하지만, 일본 사람들게는 한국은 가보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고 한다.

한 사람의 피해자도 내지 않은 광우병 문제를 두고, 온 국민이 촛불 집회를 하며 반대한 수입산 소고기나, 300 여명의 사망, 실종자를 냈다고 온 국민이 애도한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공중 안전의 약점을 세계에 노출하게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당 면하고 있는 이 악취의 문제는 이와는 비교도 할 수없 는 대규모의 문제이다. 남한 사람들은, 이런 악취문제 뿐 이 아니라도 이미 중국에서 오는 황사와 중금속이 포함 된 미세먼지의 악영향으로 안질과 호흡기 질환등의 여 러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이 미세 먼지가 신생아에게 소두뇌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 지 나오고 있다.

한국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라 시급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 이런 악취문제 따위는 추후 에 다루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심각 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남한은 세월호 참 사때 노출되었던 국가의 망신에 비교도 안될 큰 수치를

〈보스톤 의과대학 전직교수〉

모처럼 동창회에 신바람이 불었다. 미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평의원들의 소리 평의원회의를 취재하고 사진찍고 서둘러 편집을 했다. 여러 편집위원들이 나서 하는 것 또한 참으로 즐거운 일이다. 가진 것이 많은 '설대사람들'인 우리가 힘 위치 집에서 18년간 분신처럼 함께하던 가야금과 노트북을 분실했다고 한다. 인간문화재의 작품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가야금이라는데... 편집장

Window 10 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하나?

칠레의 남쪽 Torres del Paine National Park을 방문해 트렉커들 사이에서 가장 가고 싶어하는 W Trek을 5일간에 결쳐서 마쳤습니다. 특별한 형태의 눈덮인 산들, 코발트 색깔의 빙하 호수들, 형형



자들과 동문들이 필 자한테 물어 오는 질 문이다.

색색의 아름다운 산행 길, 거센 바람, Guanaco 무리들,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습니다.

졌다는 점이다.

화된 것 같다.

있게 하였다.

로 생각한다.

대로 사용할 수 있다.

4. 윈도우 XP에서 윈도우7으로 업그레

이드할 때 느꼈던 것처럼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한 후 네트워킹과 인터넷, 특

히 무선인터넷이 훨씬 빨라진 느낌이다.

5. Microsoft Edge라는 새 인터넷 브라

우저가 나와 컴퓨터의 보안이 훨씬 더 강

물론 이전의 Internet Explorer 11은 그

6. 윈도우10을 설치할 때 시스템복구 파

티션이 생성되어 바이러스나 해킹으로

인해 운영체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복

구가 훨씬 안전하고 쉬워져 일반 사용자

7. 사용자를 혼동시켰던 챰스바(Charms

Bar)를 없애버리고 대신에 Taskbar에서

액션센터를 열어 알리는 메시지를 볼 수

8. 컴퓨터와 Tablet PC에 맞는 메뉴 스

타일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9. 고급사용자들에게 한가지 도움을 드

린다면, 업그레드후 네트워크 설정이나

도우 2012서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워

도우 10 업그레이드를 적극 권장하고 싶

다. 그리고 윈도우7을 사용해 왔던 사용

대로 보존된다는 점이다.

가 쉽게 복구를 할 수 있게 한 점이다.

윈도우 10으로 무 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간이 작 년 7월 말에 시작되

어 이번 7월 말로 마감이 된다. 이 기간 이 지나면 업그레이드 비용이 약 200불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점에서 많은 컴퓨터 초보 동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몇가지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 고자 한다.

먼저, 윈도우10은 윈도우7과 윈도우8의 장점을 합쳐서 만든 새로운 운영체제이 다. 윈도우7이 가정용과 사업용 컴퓨터 를 겨냥하여 만든 운영체제라면 윈도우8 은 Tablet 과 스마트 폰을 겨냥하여 만든 운영체제라 할 수 있다. 반면 윈도우10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및 Tablet에 모두 호 환이 되는 운영체제이다.

필자가 느낀 윈도우10의 장점을 몇가지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시작메뉴가 윈도우7 스타일로 다시 돌아왔다는 점이다.
- 2. 메트로메뉴(사진)에서 데스크탑으로 들어가는 윈도우8과는 달리 데스크탑에 서 메트로 메뉴를 열어 볼 수 있게 한 점 이다.
- 3. 여러개의 프로그램을 여러개의 가상 데스크탑에 그룹별로 열어놓고 옮겨가며 사용하게 되어 멀티태스킹이 훨씬 편해

다만 몇가지 주 의해야 할 사항은 사용자가 사용하 고 있는 프로그램 중 몇몇 중소 업체 에서 만든 프로그 램들이 윈도우10 과 호환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컴퓨 터의 하드웨어 사 양(메모리 양이나 CPU 종류등)이 윈 도우10에서 요구

하는 최저치를 넘 지 못하는 경우는 업그레이드를 피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 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구입한지 5년이 안되는 컴 퓨터는 업그레이드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겠다. 컴퓨터의 프로세서로 보면 인 텔 Core 2 Duo이상이면 괜찮을 것 같다.

업그레이드에 관한 몇가지 알아두어야 프린터 그리고 네트워크 드라이브등 윈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크스테이션및 사용자의 모든 설정이 그 1. 인터넷을 통해 업그레이가 가능하고, 또 여러개의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해야 할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 이러한 몇가지 장점을 볼때 필자는 윈 하는 ISO파일로 DVD를 여러개 구워서 한꺼번에 여러개의 컴퓨터를 업그레드할 8에 비해 크게 불편한 것이 없이 다만 모 것을 권장한다.

자들은 윈도우10에 적응이 빨리 될 것으 2. 업그레이드에 걸리는 시간은 컴퓨터 다. 의 사양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1시간에



이영진 (공대 76)

한다. 만일 그 프로그램이 사업용으로 중 요한 것이면 소프트웨어업체에 문의하여 해결책이 나와 있는지 확인한다. 4.업그레이드후 새 운영체제에 만족하

서 4시간정도로 잡으면 무난할 것 같다.

3. 업그레이드한 후에 잘 사용하던 프

로그램이 작동이 안되는 경우, 무조건 포

기하지 말고 문제를 검색하여 해결책이

나와 있는지 확인하여 해결하도록 권장

지 않으면 1달내에 언제든지 이전 운영 체제로 복원이 가능하다.

윈도우10을 사용한지 1년이 안된 필자 로서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몇 개월 사용해본 결과, 윈도우7이나 윈도우 든 것이 한 단계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편집위원〉

가 무더운 초여름날을 더욱 뜨겁게 달군다. 1년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에 서 취재를 하고 사진을 찍고.. 모교 대학신문에서 온 11학번 김지윤 인턴기자도 함빡 웃음꽃이 피어난다. 이 열정이면 무언들 못할까?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 미국땅에 발을 딛자마자 맹렬한 활약을 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야 말았다. '나눔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버린 것이다. 아, 안타까운 소식 하나. 25일 평의원회의 만찬에서 가야금병창을 멋들어지게 이 '나눔나무'가 동문들의 정성으로 싹이 트고 열매가 주렁주렁 달릴 날을 상상 연주한 한테라 (음대00) 동문이 그 이틀전 필라에 오기 전 뉴욕 Subway 샌드

동창회비 (2015. 7 ~ 2016. 6)

제13대 1차년도 회기에 동창회비(1년 75불)을 보내 주신 동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RS Tax Exempt 번호- Federal TIN: 13-3859506

동창회비:	박부강(사대 64)	이영일(문리 53)	최종권(문리 59)	정지선(상대 58)	남옥우(음대 55)	이재원(법대 60)	라찬국(의대 57)	시카고	정승규(공대 60
8821-1	박성연(가정 88)	이원익(문리 73)	하기환(공대 66)	정진수(공대 56)	노용면(의대 49)	이전구(농대 60)	박종건(의대 56)	IL/IN/WI/MI	정승훈(공대 60
남가주	박순희(간호 70)	이원택(의대 65)	한정헌(치대 55)	정창희(법대 54)	문석면(의대 52)	이정은 (문리 58)	박종승(의대 56)	가 강창만(의대 58)	정영숙(사대 59
S.CA/NV	박우성(상대 77)	이의덕(신문 70)	한종철(치대 62)	조태묵(사대 60)	문소자(음대 60)	이정자(간호 59)	송두영(공대 75)	강화영(문리 50)	조대현(공대 57
강경수(법대 58)	박은숙(미대 62)	이익삼(사대 58)	한홍택(공대 60)	최경선(농대 65)	민발식(의대 60)	이정복(공대 58)	유규호(음대 70)	고광국(공대 54)	조문희(공대 56
	박인수(농대 64)	이장길(치대 63)	한효동(공대 58)	최명용(음대 64)	민준기(공대 59)	이정애(음대 57)	윤상래(수의 62)	고병철(법대 55)	조병권(공대 64
강정훈(미대 56)	박인창(농대 65)	이재권(법대 56)	현기웅(문리 64)	최왕욱(공대 69)	박건이(공대 60)	이준행(공대 48)	윤영자(미대 60)	곽영로(수의 72)	조봉완(법대 53
강중경(공대 48) 강홍제(상대 53)	박임하(치대 56)	이재룡(공대 71)	현순일(문리 58) 현운석(법대 64)	하선호(치대 81)	박경숙(간호 72)	이종석(상대 57)	이금하(문리 69) 이의인(공대 68)	권호연(문리 57) 구행서(공대 69)	조형원(약대 50 차대양(공대 55
강희창(공대 57)	박자경(사대 60) 박정우(의대 54)	이재선(농대 58) 이정근(사대 60)	연군식(립대 64) 홍동식(법대 64)	한근배(공대 65) 한만섭(공대 47)	박경원(미대 66) 박수안(의대 59)	이종환(법대 51) 이중춘(공대 56)	이희균(공대 69)	구행시(등대 09) 김갑중(의대 57)	차다왕(공대 55 채무원(의대 59
고석원(문리 50)	박제인(약대 60)	이정옥(공대 52)	홍성선(약대 72)	한상봉(수의 67)	박순영(법대 56)	이지현(문리 73)	장수인(음대 76)	김국화(공대 56)	최대한(의대 53
고영순(음대 59)	박종수(수의 58)	이정화(공대 52)	홍수웅(의대 59)	홍경삼(문리 61)	박영태(상대 63)	이천희(간호 53)	정정욱(의대 60)	김규호(의대 58)	최혜숙(의대 53
고용규(의대 69)	박찬호(농대 63)	이종묘(간호 69)	홍순택(사대 59)	홍병익(공대 68)	박은규(약대 72)	이충호(의대 63)	조성호(공대 85)	김사직(상대 59)	최병두(의대 52
권기상(경영 72)	박찬호(공대 58)	이준호(상대 65)	황규혁(공대 50)	황동하(의대 65)	박진우(상대 77)	이태상(문리 55)	최선희(문리 69)	김성일(공대 68)	최희수(의대 67
권영달(문리 50)	박취서(약대 60)	이중희(공대 53)		황만익(사대 59)	박현성(약대 60)	이한수(의대 55)		김승주(간호 69)	하계현(공대 64
권영재(문리 57)	박창선(공대 55)	이창무(공대 54)	북가주		방준재(의대 63)	이행순(미대 60)	달라스	김연화(음대 68)	한의일(공대 62
김강수(문리 59) 김경수(치대 58)	박태호(치대 66) 방명진(공대 73)	이청광(상대 61) 이채진(문리 55)	SAN FRANCISCO 강재호(상대 57)	뉴욕 NJ/NY/CT	변건웅(공대 65) 배명애(간호 47)	이홍빈(의대 57) 임건식(음대 54)	LA/DALLAS 박영규(사대 66)	김용우(공대 58) 김용주(공대 69)	한재은(의대 59 함성택(문리 55
김경옥(미대 61)	배동완(공대 65)	이 청(농대 61)	강정수(문리 61)	NJ/N1/O1 강교숙(간호 73)	배상규(약대 61)	임광록(간호 72)	박준섭(약대 63)	김일훈(의대 51)	황치룡(문리 65
김광은(음대 56)	배병옥(음대 58)	이학은(약대 57)	권오형(사대 61)	강석권(법대 61)	서경애(음대 67)	임재락(보건 68)	신철영(문리 64)	김정수(문리 69)	6八6(正月 00
김광현(상대 69)	배효식(문리 52)	이해영(공대 56)	김광한(농대 63)	강영선(공대 50)	서병선(음대 65)	임충섭(미대 60)	유 황(농대 56)	김정숙(약대 51)	애리조나
김교복(농대 63)	백소진(문리 55)	이홍표(의대 58)	김병호(상대 57)	강에드워드(사대 60)	서상철(의대 50)	장대옥(음대 57)	이동성(의대 51)	김정화(음대 56)	ARIZONA
김구자(미대 61)	백옥자(음대 71)	이효경(치대 63)	김상온(약대 59)	고순정(간호 69)	서영숙(간호 67)	장동만(문리 55)	윤귀현(공대 77)	김재관(의대 62)	박양세(약대 48
김규현(법대 53)	백정애(간호 69)	이희충(공대 68)	김길평(상대 62)	곽노섭(문리 49)	서정웅(약대 63)	장영자(간호 68)	전중희(공대 59)	김재석(의대 67)	이경화(의대 56
	서명희(농대 67)	임동규(미대 57)	김영춘(수의 64)	곽선섭(공대 61)	석창호(의대 66)	장화자(간호 60)	조진태(문리 57)	김종규(공대 77)	유기석(문리 60
	서치원(공대 69)	임동호(약대 55)	김영호(사대 56)	권문웅(미대 61)	선종칠(의대 57)	전병삼(약대 54)	탁혜숙(음대 67)	김현배(의대 66)	지영환(의대 59
	선우원근(공대 66) 성낙호(치대 63)	임문빈(상대 58) 임재영(공대 59)	김옥경(음대 69) 김완기(사대 50)	권영국(상대 60) 권용구(상대 ?)	성기로(약대 57) 손갑수(약대 59)	정순기(문리 69) 정인식(상대 58)	록키마운틴스	김희주(의대 62) 노영일(의대 62)	앨라스카
	손기용(의대 55)	임진환(치대 68)	김윤범(의대 54)	김경순(상대 59)	손경택(농대 57)	정인용(의대 65)	복기마군인스 MT/CO/WY/NM	문광재(의대 62)	ALASKA
	손선행(간호 69)	임창희(공대 73)	김정복(사대 55)	김경애(간호 54)	손병우(문리 69)	정창동(간호 45)	김낙제(농대 56)	문병훈(사대 47)	윤재중(농대 54
	손학식(공대 61)	임화식(치대 59)	김정희(음대 56)	김광현(미대 57)	송기인(의대 60)	조규웅(의대 59)	김봉전(공대 68)	민영기(공대 65)	하인환(공대 56
김석두(농대 58)	송기성(사대 52)	장기화(치대 57)	김현왕(공대 64)	김기훈(상대 52)	송병문(공대 62)	조남천(사대 59)	송요준(의대 64)	박상연(간호 69)	
	신규식(농대 61)	장기창(공대 56)	김희봉(공대 68)	김동진(약대 56)	송세엽(의대 54)	조아미(음대 61)	이석호(공대 66)	박정일(의대 61)	오레곤
	신동국(수의 70)	장정용(미대 64)	남광순(음대 64)	김동환(약대 56)	송영순(사대 60)	조정현(수의 58)	표한승(치대 58)	박용순(의대 53)	OR/ID
	신상화(공대 58) 신영찬(의대 63)	장 준(문리 85)	남승채(공대 66)	김명철(공대 60)	송용섭(농대 63)	조종수(공대 64)	유광현(문리 58)	박창욱(공대 56) 베여서(이리 54)	김상만(음대 46
	신정산(의대 63) 신정연(미대 61)	장진성(약대 66) 전경철(공대 55)	노문희(사대 59) 민병곤(공대 65)	김문경(약대 61) 김병권(문리 63)	송혜순(사대 62) 신석대(사대 58)	조태환(상대 56) 주공로(공대 68)	미네소타	배영섭(의대 54) 서상헌(의대 65)	김상순(상대 67 김성열(치대 61
	심상은(상대 54)	전낙관(사대 60)	박경룡(약대 63)	김병석(의대 53)	신정택(약대 52)	진봉일(공대 50)	MINNESOTA	서영일(의대 62)	박희진(농대 78
	안병일(의대 63)	전범수(농대 71)	박노면(사대 50)	김병숙(보건 64)	안재현(상대 60)	차국만(상대 56)	강선명()	소진문(치대 58)	성성모(사범 67
김원경(약대 59)	안용일(법대 61)	전상옥(사대 52)	박서규(법대 56)	김병술(약대 52)	안홍원(농대 61)	최구진(약대 54)	김권식(공대 61)	송재현(의대 46)	이은설(문리 53
	양승문(공대 65)	전순열(사대)	박원준(공대 53)	김봉련(사대 54)	양명자(사대 63)	최덕순(간호 59)	김영남(사대 53)	신동화(문리 55)	전병택(상대 65
	양운택(의대 58)	전성대(사대 60)	박찬호(자연 81)	김석식(의대 58)	양순우(법대 67)	최영태(문리 67)	김영화(문리 65)	신석균(문리 54)	최동근(문리 50
	양은혁(상대 56)	정동구(공대 57)	박찬형(의대 58)	김성수(상대 64)	염극용(의대 54)	최영혜(간호 64)	남세현(공대 67)	심상구(상대 63)	한국남(공대 57
	양창효(상대 54) 염동해(농대 64)	정동주(가정 72) 정연웅(상대 63)	변영근(수의 52) 손창순(공대 69)	김성현(약대 65) 김세중(공대 50)	오명주(간호 77) 오영식(법대 72)	최일단(미대 55) 최종진(의대 53)	변우진(인문 81) 성욱진(치대 87)	안신훈(농대 61) 안은식(문리 55)	한영준(사대 60
	오송자(사대 59)	정인환(법대 54)	송정자(의대 67)	김석자(음대 61)	우관혜(음대 63)	최한용(농대 58)	송창원(문리 53)	안영학(문리 57)	오하이오
	위종민(공대 64)	정예현(상대 63)	안병협(공대 58)	김승호(공대 71)	우상영(상대 55)	최형무(법대 69)	왕규현(의대 56)	오동환(의대 65)	OHIO
	유승일(의대 59)	정재화(상대 59)	안영섭(공대 80)	김영만(상대 59)	유영호(의대 52)	최혜자(간호 69)	이창재(문리 56)	윤봉수(간호 69)	김동광(공대 62
	유의영(문리 56)	정재훈(공대 64)	안 진(음대 94)	김영애(사대 56)	유재섭(공대 65)	한경수(문리 57)	주한수(수의 62)	이덕수(문리 58)	김용헌(경영 59
	유재환(상대 67)	정태무(사대 44)	양광주(문리 58)	김영일(약대 58)	유택상(문리 58)	한성호(약대 60)	황효숙(사대 65)	이상오(문리 61)	명인재(? 75
	윤경민(법대 55)	정해창(치대 69)	양은석(음대 70)	김영철(의대 55)	육순재(의대 63)	한인섭(약대 63)		이상일(의대 54)	성흥환(수의 75
	윤용길(공대 55)	정현진(간호 68)	원미랑(미대 65) 온기철(의대 65)	김완주(의대 54)	윤봉균(사범 54)	한영수(의대 61)	샌디에고	이소희(간호 68)	안순자(문리 56
	이건일(의대 62) 이경수(수의 73)	정 황(공대 64) 제영혜(가정 71)	온기철(의대 65) 윤성희(사대 58)	김용술(상과 56) 김용연(문리 63)	윤순철(사대 44) 윤신원(의대 50)	한종룡(공대 54) 한태진(의대 58)	SAN DIEGO 강영호(의대 57)	이승자(사대 60) 이승훈(공대 66)	여준구(의대 64 이계석(의대 67
	이 관(공대 55)	조동준(의대 57)	윤희성(치대 65)	김우영(상대 60)	윤영섭(의대 57)	함종금(간호 66)	김계윤(의대 57)	이시영(상대 46)	이명진(공대 61
	이규달(의대 62)	조만연(상대 58)	이강우(문리 59)	김욱현(의대 59)	윤인숙(간호 63)	허병렬(사범 42)	김기준(공대 61)	이영철(공대 60)	이영웅(의대 56
	이근웅(의대 61)	조무상(법대 70)	이관모(공대 55)	김윤수(상대 50)	윤정옥(약대 50)	허선행(의대 58)	김현철(의대 57)	이용락(공대 48)	송용재(의대 63
김희재(사대 63)	이근원(공대 67)	조상하(치대 64)	이계승(공대 67)	김인형(미대 59)	이강홍(상대 60)	허유선(가정 83)	김홍천(공대 56)	이윤모(농대 57)	최인갑(공대 57
	이기재(사대 52)	조일혜(약대 58)	이기준(법대 54)	김정빈(약대 54)	이경림(상대 64)	홍선경(의대 58)	남장우(사대 56)	이정일(농대 57)	
	이명선(상대 58)	조재길(사대 61)	이문영(문리 60)	김정순(법대 53)	이경태(공대 63)	황 윤(약대 81)	민영기(치대 61)	이종일(의대 65)	워싱턴 DC
	이방기(농대 59) 이번사(고대 61)	조정시(공대 60)	이성형(공대 57)	김정은(의대 77)	이국진(사대 51)	L017="-	박경호(사대 53)	임병훈(의대 54)	DC/MD/VA/WV
	이범식(공대 61) 이병준(상대 55)	조충자(간호 61) 주정래(상대 65)	이정옥(가정 71) 이진영(의대 65)	김정희(간호 69) 김종원(사대 58)	이능석(의대 57) 이대연(약대 65)	뉴잉글랜드 MA/RI/NH/ME/VT	심기련(상대 57) 윤진수(의대 57)	임이섭(미대 54) 임현재(의대 59)	강길종(약대 69 강도호(사회 81
	이상대(농대 80)	구성대(성대 65) 지인수(상대 59)	이선영(의대 65) 이현숙(사대 62)	김창선(공대 58) 김창섭(공대 52)	이내언(악대 65) 이병무(법대 57)	MA/RI/NH/ME/VI 고일석(보건 69)	윤선구(의대 57) 이문상(공대 62)	함면제(의대 59) 장기남(문리 62)	강도오(사외 81 강연식(사대 58
	이상문(의대 52)	차기민(공대 85)	이홍기(공대 62)	김창수(약대 64)	이성구(약대 56)	김문소(수의 61)	이영모(의대 55)	장세곤(의대 57)	강준희(의대 71
	이서희(법대 70)	차종환(사대 54)	임정란(음대 76)	김학자(간호 59)	이수호(보건 69)	김선혁(약대 59)	이영신(간호 77)	장시경(약대 58)	강창욱(의대 55
	이성숙(공대 56)	최영순(간호 69)	전병련(공대 54)	김한종(의대 56)	이시진(문리 54)	김신형(의대 50)	임천빈(문리 61)	장재진(공대 80)	공순옥(간호 66
	이소희(의대 61)	최영식(법대 59)	정규남(공대 52)	김현중(공대 63)	이영숙(간호 56)	김정환(공대 52)	임춘수(의대 57)	장윤일(공대 60)	곽근영(사대 51
	이양구(상대 57)	최용완(공대 57)	정유석(의대 58)	김훈일(공대 60)	이유성(사대 57)	김제호(상대 56)	전원일(의대 77)	장 홍(문리 61)	곽명운(공대 61
마=====================================	이어즈/기저 [이	되었시(이미 61)	저저스(기미 = 0)	기하기(미미) (이	$\bigcap [T][X][\bigcap][T] [GO]$	기이스(1 [대] 55)	지서는(고미) (시	저거처(고미 [[/07대 계소

박병원(의대 49) 이연주(가정 52) 최창식(의대 61) 정정순(사대 56) 김희자(미대 66) 이재진(의대 59) 김인수(사대 55) 진성호(공대 64) 전경철(공대 55) (27면 계속)

〈워싱턴DC 계속〉	백 순(법대 58)	임종식(의대 91)	김석민(사대 55)	김종구(수의 73)	김국간(치대 64)	윤정나(음대 57)	황선희(공대 74)	한광수(의대 57)	성낙준(사대 68)
	변만식(사대 49)	임창주(공대 55)	김영창(공대 64)	김태형(의대 57)	김규화(상대 63)	이규호(공대 56)		홍 훈(자연)	이상강(의대 70)
권기현(사대 53)	서기병(상대 55)	임필순(의대 54)	김인배(수의 59)	백낙영(상대 61)	김무형(약대 63)	이만택(의대 52)	플로리다		이은미(자연 83)
권오근(상대 58)	서윤석(의대 62)	장수영(공대 57)	김재훈(공대 72)	손종수(의대 50)	김순주(치대 95)	이병인(수의 69)	FLORIDA	테네시	임영신(의대 54)
권철수(의대 68)	서휘열(의대 55)	장윤희(사대 54)	박진수(의대 62)	안승덕(상대 51)	김영우(공대 55)	이상봉(문리 65)	김동한(문리 53)	TENNESSEE	오태요(의대 56)
김내도(공대 62)	석균범(문리 61)	전기택(의대 53)	변종혜(법대 58)	양정자(간호 61)	김은숙(약대 53)	이성숙(가정 74)	김선혜(가정 69)	김경덕(공대 75)	정민재(농대 70)
김동훈(법대 56)	송병준(약대 68)	정계훈(문리 55)	송 준(공대 55)	오경호(수의 60)	김정현(공대 68)	이수경(자연 81)	김중권(의대 63)	김 현(사회 93)	최은관(상대 54)
김명자(법대 52)	신용계(의대 62)	정기순(간호 67)	윤태근(상대 69)	유우영(의대 61)	김재술(약대 58)	이지영(문리 67)	문상규(의대 56)	서갑식(공대 70)	
김병오(의대 63)	안승건(문리 55)	정양수(의대 60)	이동립(의대 52)	이명재(상대 54)	김진우(공대 62)	이지춘(미대 57)	박창익(농대 64)	우양구(법대 70)	휴스턴
김복순(문리 55)	안창호(약대 70)	정원자(농대 62)	이원섭(농대 77)	임수암(공대 62)	김한중(공대 56)	전무식(수의 61)	안창현(의대 55)		HOUSTON
김석희(의대 54)	안태민(공대 62)	정평희(공대 71)	이회백(의대 55)	임한응(공대 60)	김현영(수의 59)	전방남(상대 73)	유호준(의대 52)	하와이	김동수(의대 60)
김승태(문리 66)	양광수(공대 73)	조남현(의대 64)	최준한(농대 58)	정양수(의대 60)	노은숙(약대 53)	전희근(의대 54)	이재덕(법대 60)	HAWAII	김성철(의대 61)
김시환(공대 71)	오광동(공대 52)	조성호(공대 85)	홍영옥(음대 54)	정인태(의대 64)	민흥식(수의 60)	정덕준(상대 63)	송순영(문리 52)	김승태(의대 57)	김장환(공대 81)
김안정(문리 59)	오인환(문리 63)	조순자(문리 52)	홍계인(음대 60)	정일화(상대 55)	박형준(공대 87)	정용남(문리 60)	송용덕(의대 57)	남궁종(공대 52)	김태훈(공대 57)
김영기(공대 73)	이영묵(공대 59)	조화유(문리 61)		주중광(약대 60)	배성호(의대 65)	정태광(공대 74)	전영자(미대 58)	손호민(문리 52)	김한섭(의대 53)
김용덕(의대 53)	우제형(상대 54)	진금섭(약대 57)	유타	최우백(공대 76)	서재진(공대 47)	정학량(약대 56)	정진묵(의대 50)	유재호(문리 59)	박석규(간호 57)
김종호(약대 68)	원종민(약대 57)	진학송(약대 82)	UTAH	최재학(사대 56)	서중민(공대 64)	정홍택(상대 61)	조동건(공대 69)	최경윤(사범 51)	박유미(약대 62)
김진수(의대 60)	유덕영(공대 57)	차임경(가정 77)	김명혜(미대 77)	최종진(의대 63)	손재옥(가정 77)	조정현(수의 58)	최준희(의대 58)		신달수(공대 59)
김창호(법대 56)	유영준(의대 70)	최경수(문리 58)	김성완(문리 59)	한 호(상대 62)	송영두(의대 56)	조영호(음대 56)	한기빈(공대 52)	하트랜드	이규진(약대 60)
김해식(공대 59)	유정식(수의 60)	최규식(상대 64)	김인기(문리 58)	허지영(문리 66)	신상재(수의 59)	주기목(수의 68)	홍순호(수의 74)	IA/MO/KS/	이길영(문리 59)
김형민(상대 84)	유홍렬(자연 74)	최정미(사범 55)	마천일(의대 62)		신선자(사대 60)	지재원(사대 68)	황현상(의대 52)	NE/AR/OK	이영재(상대 58)
남욱현(경영 84)	윤경의(공대 57)	한정민(농대 81)		중부텍사스	신성식(공대 56)	지흥민(수의 61)		구명순(간호 66)	이찬주(문리 63)
도상철(의대 63)	이규양(문리 62)	한의생(수의 60)	조지아	MID-TEXAS	심영석(공대 76)	차호순(문리 60)	캐 <u>롤</u> 라이나	김경숙(가정 70)	진기주(상대 60)
문성길(의대 63)	이내원(사대 58)	한인섭(문리 55)	GA/AL/MS	채영철(공대 50)	심완섭(의대 69)	최정웅(공대 64)	SC/NC/KY	김명자(문리 62)	최관일(공대 54)
박영호(공대 64)	이문항(공대 46)	홍영석(공대 58)	강창석(의대 73)		심회진(음대 90)	최종무(상대 63)	김기현(문리 52)	김승희(법대 55)	최완주(공대 83)
박인영(의대 69)	이선구(문리 65)	홍용식(공대 51)	김성호(법대 50)	필라델피아	안세현(의대 62)	최종문(공대 61)	마동일(의대 57)	김제권(사대 68)	최성호(문리 58)
박일영(문리 59)	이영재(치대 66)		김순옥(의대 54)	PA/DE/S.NJ	엄종열(미대 61)	최현태(문리 62)	이달호(사대 46)	김호원(치대 52)	탁순덕(사대 57)
박 철(공대 57)	이우진(농대 86)	워싱턴주	김용건(문리 48)	강영배(수의 59)	오진석(치대 56)	한융오(보건 70)	이범세(의대 59)	도태영(사회 93)	허 천(공대 60)
박한수(경영 81)	이재승(의대 55)	WASHINGTON	김영서(상대 54)	고영자(치대 63)	유기병(문리 64)	허창기(약대 67)	이석형(사대 56)	박정일(의대 66)	
박홍우(문리 61)	이준영(치대 74)	김동호(농대 58)	김융자(사대 60)	김경희(가정 71)	윤경숙(문리 59)	현명억(공대 75)	이항열(법대 57)	백산옥(문리 51)	

27

2차년도 회기: 동창회비 (2016. 7 ~ 2017. 6)

8월호부터 동창회비 명단은 2차년도 회기 명단만 기재됩니다

제13대 동창회비를 1년만 납부하신 동문은 1차년도 회기(2015.7 ~ 2016.6) 회비로 결재 되었습니다.

동창회비:	이건일(의대 62)	홍순택(사대 59)	김창화(미대 65)	조종수(공대 64)	성욱진(치대 87)	장 홍(문리 61)	박홍우(문리 61)	최우백(공대 76)	홍순호(수의 74)
	이병준(상대 55)		문석면(의대 52)	주공로(공대 68)	송창원(문리 53)	차대양(공대 55)	서윤석(의대 62)		
남가주	이성숙(공대 56)	북가주	민발식(의대 60)	최구진(약대 54)	왕규현(의대 58)	최병두(의대 52)	안선미(농대 65)	중부텍사스	캐롤라이나
S.CA/NV	이소희(의대 61)	SAN FRANCISCO	박건이(공대 60)	최영혜(간호 64)	황효숙(사대 65)	최혜숙(의대 53)	유영준(의대 70)	MID-TEXAS	SC/NC/KY
강중경(공대 48)	이정근(사대 60)	김영춘(수의 64)	박경숙(간호 72)	한승순(간호 70)		함성택(문리 55)	윤경의(공대 57)	김은영(가정 77)	이달호(사대 46)
강홍제(상대 53)	이정화(공대 52)	노문희(사대 59)	박순영(법대 56)	한인섭(약대 63)	샌디에고		이계성(간호 65)		이범세(의대 59)
고영순(음대 59)	이재선(농대 58)	박경룡(약대 63)	박영태(상대 63)	한태진(의대 58)	SAN DIEGO	앨라스카	이내원(사대 58)	필라델피아	이항열(법대 57)
고용규(의대 69)	이준호(상대 65)	박노면(사대 50)	박현성(약대 60)	함종금(간호 66)	강영호(의대 57)	ALASKA	이문항(공대 46)	PA/DE/S.NJ	
김광은(음대 56)	이 청(농대 61)	손창순(공대 69)	배명애(간호 47)	허병렬(사범 42)	김기준(공대 61)	윤제중(농대 55)	이준영(치대 74)	김경희(가정 71)	테네시
김규현(법대 53)	이청광(상대 61)	안병일(의대 63)	변건웅(공대 65)	허선행(의대 58)	남장우(사대 56)		이윤주(상대 63)	김국간(치대 64)	TENNESSEE
김석두(농대 58)	임문빈(상대 58)	원미랑(미대 65)	서경애(음대 67)		박우선(공대 57)	오레곤	이재승(의대 55)	김정현(공대 68)	김경덕(공대 75)
김병연(공대 68)	임진환(치대 68)	온기철(의대 65)	서병선(음대 65)	뉴잉글랜드	이영모(의대 55)	OR/ID	장윤희(사대 54)	김진우(공대 62)	서갑식(공대 70)
김병완(공대 58)	임창희(공대 73)	윤진자(미대 60)	서상철(의대 50)	MA/RI/NH/ME/VT	진성호(공대 64)	김상만(음대 46)	조화유(문리 61)	김운옥(간호 76)	
김용재(의대 60)	임춘수(의대 57)	이관모(공대 55)	서정웅(약대 63)	김문소(수의 61)		김상순(상대 67)	진금섭(약대 57)	강영배(수의 59)	하와이
김택수(의대 57)	장 준(문리 85)	이장우(문리 72)	선종칠(의대 57)	김인수(사대 55)	시카고	최동근(문리 50)	최규식(상대 64)	김영우(공대 55)	HAWAII
김희자(간호 64)	전상옥(사대 52)	임동규(미대 57)	송영순(사대 60)	박영철(농대 64)	IL/IN/WI/MI	한영준(사대 60)	최정미(사범 55)	민흥식(수의 60)	김승태(의대 57)
김희창(공대 64)	전원일(의대 77)	임정란(음대 76)	신달수(공대 59)	이금하(문리 69)				손재옥(가정 77)	남궁종(공대 52)
나두섭(의대 66)	정동구(공대 57)	정유석(의대 58)	안재현(상대 62)	정선주(간호 68)	강화영(문리 50)	오하이오	워싱턴주	송영두(의대 56)	장광수(사대 50)
문인일(공대 51)	정연웅(상대 63)	한종철(치대 62)	오명주(간호 77)	최선희(문리 69)	김갑중(의대 57)	OHIO	WASHINGTON	신상재(수의 59)	최경윤(사대 51)
박우성(상대 77)	정재화(상대 59)	황동하(의대 65)	우관혜(음대 63)		김규호(의대 58)	명인재(75)	김동호(농대 58)	신성식(공대 56)	
박원준(공대 53)	정진수(공대 56)	황만익(사대 59)	우상영(상대 55)	달라스	김성일(공대 68)	성흥환(수의 75)	김영창(공대 64)	안세현(의대 62)	하트랜드
박제인(약대 60)	정 황(공대 64)		유영호(의대 52)	LA/DALLAS	김용주(공대 69)	이계석(의대 67)	김재훈(공대 72)	오진석(치대 56)	IA/MO/KS/
박영희(음대 66)	조동준(의대 57)	뉴욕	육순재(의대 63)	박영규(사대 66)	김현배(의대 66)	최인갑(공대 57)		유기병(문리 64)	NE/AR/OK
백소진(문리 55)	조만연(상대 58)	NJ/NY/CT	윤신원(의대 50)	박준섭(약대 63)	김희주(의대 62)		전병택(상대 65)	이성숙(가정 74)	구명순(간호 66)
변영근(수의 52)	조정시(공대 60)	강에드워드(사대 60)	이수호(보건 69)	전중희(공대 59)	구행서(공대 69)	워싱턴 DC		이지춘(미대 57)	김명자(문리 62)
서치원(공대 69)	조재길(사대 61)	계동휘(치대 67)	이영숙(간호 56)	조진태(문리 57)	노영일(의대 62)	DC/MD/VA/WV	유타	윤정나(음대 57)	임영신(의대 54)
선우원근(공대 66)	주정래(상대 65)	곽노섭(문리 49)	이영신(간호77)	탁혜숙(음대 67)	문병훈(사대 47)	강연식(사대 58)	UTAH	정덕준(상대 63)	
손기용(의대 55)	지인수(상대 59)	곽선섭(공대 61)	이정옥(공대 52)		서상헌(의대 65)	강창욱(의대 55)	김인기(문리 58)	정태광(공대 74)	휴스턴
손학식(공대 61)	최덕순(간호 59)	권문웅(미대 61)	이종석(상대 57)	록키마운틴스	송순영(문리 52)	공순옥(간호 66)		정학량(약대 56)	HOUSTON
신상화(공대 58)	최용완(공대 57)	권숙자(간호 59)	이종환(법대 51)	MT/CO/WY/NM	안은식(문리 55)	권오근(상대 58)	조지아	조영호(음대 56)	김태훈(공대 57)
심상은(상대 54)	최종권(문리 59)	김문경(약대 61)	이태상(문리 55)	송요준(의대 64)	이승자(사대 60)	권철수(의대 68)	GA/AL/MS	최정웅(공대 64)	김한섭(의대 53)
양운택(의대 58)	하기환(공대 66)	김석식(의대 58)	이한수(의대 55)	이석호(공대 66)	이승훈(공대 66)	김내도(공대 62)	강창석(의대 73)		이찬주(문리 63)
양창효(상대 54)	한근배(공대 65)	김석자(음대 61)	임재락(보건 68)		이시영(상대 46)	김동훈(법대 56)	손종수(의대 56)	플로리다	최관일(공대 54)
유석홍(상대 61)	한정헌(치대 55)	김성현(약대 65)	임충섭(미대 60)	미네소타	이영철(공대 60)	김영기(공대 73)	안승덕(상대 51)	FLORIDA	최성호(문리 58)
유의영(문리 56)	한효동(공대 58)	김용연(문리 63)	장화자(간호 60)	MINNESOTA	이정일(농대 57)	김용덕(의대 53)	유우영(의대 61)	김중권(의대 63)	
윤경민(법대 55)	홍선례(음대 70)	김우영(상대 60)	전병삼(약대 54)	남세현(공대 67)	임현재(의대 59)	김종호(약대 68)	임수암(공대 62)	박창익(농대 64)	
윤희성(치대 65)	홍성선(약대 72)	김정순(법대 53)	정창동(간호 45)	김영남(사대 53)	장윤일(공대 60)	김해식(공대 59)	정인태(의대 64)	송용덕(의대 57)	
(a) (a) (a) (b)	증소(이)에 FO	7)7]-](7)- 00)	オコウ(か) -11 FO)	기어를 (미리 여자	되스기(코레 00)	비어는(고리) 6시	고)이는)// Jell cc/	고)(네고) (비) 리 (co)	

이 관(공대 55) 홍수웅(의대 59) 김정희(간호 69) 조규웅(의대 59) 김영화(문리 65) 정승규(공대 60) 박영호(공대 64) 정일화(상대 55) 전영자(미대 58)

29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28

공인회계사

CPA 김재영 공인회계사 김재영 (농대 62)

Tel.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LA, CA 90010

Kim & Kang CPA's (김경무 강정옥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 (상대 81)

Tel. (714) 530-3630 12912B 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481-0100 junchangcpa@hotmail.com 19520 Nordhoff St. #16 Northridge, CA 91324 1100 Wilshire Blvd. Suite 2904 LA, CA 90017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이영일(문리대 53)

Howard Y. Ree 3700 Wilshire Blvd., Suite 25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760-3700 Fax: (213) 383-2515 email: howardree@gmail.com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일주

당신。| 꿈꾸는 모든 여행。| 가능합니다!

o ____ 5대양 6대주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본사직원과 현지가이드의 입체시스템, 믿음직한 동행과 함께하세요.

33년 이상 어느곳이든 5스타 전문성과 노하우 금 서비스와 가이드

······ 어느곳이든 5스타급 usajutour.com 213-388-4000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엔지니어링 컨설팅 / 건축

Lee & Ro, Inc. 노명호 (공대 61)

Tel.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의료 / 약국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암내과 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운송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도매)

이병준 (상대 55)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치과

배윤범 치과

배윤범 (치대 69)

Tel. (213) 385-1233 3540 Wilshire Bl. LA, CA 90010 michaelyoonbae@gmail.com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jchung@taycoeng.com www.taycoeng.com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 65)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Tel. (818) 768-5494 Fax. (818)768-5040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볍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CA 90010 www.haanlaw.com

부동산

Teamspirit Realty

Jennie Lee 이종묘 (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lee@gmail.com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리테일러 / 보석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Tel. (213) 627-0547 650 S. Hill St. #E 8 LA, CA 90014

라 카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267호 | 2016년 7월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CA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2910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2makes1.com / 1durihana@gmail.com

비영리법인 해양 극지에너지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Jin S Chung 정진수 (공대 56) Ocean. Arctic, Energy www.isope.org, jschung@isope.org

P.O. Box 189,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Tel. (404) 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Wesley & Associates, CPA

Tel. (770) 451-1850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NV 네바다

Best Care Dental

김영중 (치대 66)

Tel. (702) 384-2828, (702) 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NY / NJ (뉴욕 / 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New York Golf Center

리테일러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Young Tai Choi E.A.

최영태 (문리 67)

Tel. (212) 695-0206 13 E 30th St. 2Fl New York, NY 10016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 (보건대 69) Tel. (718) 353-6207 36-32 Union St. #3F Flushing, NY 11354

광고문의: (484)344-5500

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 (법대 60)

Tel. (201) 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이재덕 (법대 60) Tel. (201) 944-4949 258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www.cosmorealty.com

건축

김주현 건축사무소

김주현 (공대 93) Tel. (347) 213-3516 150 S. Middle Neck Rd. #1D

Great Neck, NY 11021

MD·VA·워싱턴 DC

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Io.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엔지니어링 컨설팅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el. (703) 327-2797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350,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loan.com

부동산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 (농대 69)

Tel.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PA 필라델피아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동물병원 / 치과

(ASSI Plaza)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 (수의대 68)

Tel.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건축

Timothy Haahs & Assoc.

손재옥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K-Shopping

International, Inc. (이원로)

이병준(상대 55) 480

Brain Network 후원금:

김은종(상대59) 200 이수호(보건 69) 240

송순영(문리 52) 500 이영일(문리 53) 400

윤상래(수의62) 200 이재덕(법대 60) 240

한재은(의대 59) 500 이재원(법대 60) 200

이상대(농대 80) 120 JG Business Link 500

광고 및 업소록비 • 기타 후원 동문 (2015. 7 ~ 2017. 6) 제13대 2년동안의 후원금 & 광고비

각종 후원금으로 미주동창회의 모든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정선주(간호 62) 2,000 권기현(사대 53) 200

홍 진(간호 56) 500

황만익(사대59) 400 **록키마운틴스**

강정수(문리 61) 200 윤상래(수의 62) 1,000 박원국(공대 52) 200 이종영(음대 58) 200

박종승(의대 56) 200 권철수(의대 68) 400 캐롤라이나

송요준(의대 64) 275 변만식(사대 49) 200 **하와이**

백 순(법대 58) 200

박평일(농대 69) 600 한광수(의대 57) 200

IRS Tax Exempt 번호- Federal TIN: 13-3859506

이종묘(간호 69) 240 후원회비: 손재옥(가정 77) 3,000 서윤석(의대 62) 400 김승태(의대 57) 400 미네소타 오인환(문리 63) 200 이준영(치대 74) 김창원(공대 49) 200 NYChapter 2,000 김영남(사대 53) 400 모교발전기금: 장 준(문리 85) 남가주 김영화(문리 65) 200 이선구(문리 65) 200 강에드워드(사대 60) 200 정재훈(공대 64) 고영순(음대 59) 200 강재호(상대 57) 200 곽선섭(공대 61) 300 이영묵(공대 59) 400 하트랜드 김기형(상대 75) 200 김명철(공대 60) 200 김순덕(간호 61) 정지선(상대 58) 500 구명순(간호 66) 200 김동석(음대 64) 200 김병숙(보건 64) 200 정진수(공대 56) 박종승(의대 56) 100 워싱턴주 이상강(의대 70) 5,300 박우선(공대 57) 200 성흥환(수의 75) 주기목(수의 68) 김병연(공대 68) 300 김승호(공대 71) 200 김성열(치대 61) 200 이은미(자연 83) 200 200 임춘수(의대 57) 400 김 영(수의 63) 500 김영만(상대 59) 200 이원섭(농대 77) 200 이원섭(농대 77) 100 최무식(약대 66) 최은관(상대 54) 200 임영자(간호 61) 최종문(상대 61) 김종표(법대 58) 200 김창수(약대 64) 500 500 하선호(치대 81) 나두섭(의대 66) 200 김기훈(상대 52) 200 임천빈(문리 61) 100 강창만(의대 58) 100 휴스턴 정명숙(간호 61) 한상봉(수의 67) 500 박범순(가정 70) 100 김한종(의대 56) 100 김명혜(미대 77) 500 진기주(상대 60) 200 구행서(공대 69) 200 정일화(상대 55) 박자경(사대 60) 200 노용면(의대 49) 200 김성완(문리 59) 200 50 오동환(의대 65) 100 디자인 광고: 지부분담금: 차기민(공대 85) 200 박종수(수의 58) 1,500 문석면(의대 52) 400 이용락(공대 48) 600 김광호(문리 62) 9,000 박창선(공대 55) 200 민준기(공대 59) 1,200 필라델피아 3,000 최희수(문리 67) 100 김영민(농대 72) 1,000 김국간(치대 64) 400 Golf 후원금: 백옥자(음대 71) 400 손병우(문리 69) 200 3,000 김인종(농대 74) 1,000 양승문(공대 65) 200 신정택(약대 52) 200 이전구(농대 60) 500 김금자(간호 63) 200 뉴잉글랜드 1,000 김창수(약대 64) 300 김순주(치대 95) 안혜정(가정 77) 100 양순우(법대 67) 200 200 NE Chapter 100 록키마운틴 300 김융자(사대 60) 200 김혜정(문리 82) 4,600 염동해(농대 64) 500 윤정옥(약대 50) 200 김종휘(약대 54) 200 미네수타 600 정일화(상대 55) 200 노명호(공대 61) 1,000 위종민(공대 64) 300 이강홍(상대 60) 500 기타: 송영두(의대 56) 400 북가주 500 주중광(약대 60) 1,000 분당서울대병원 윤경숙(문리 59) 3.000 김영실 100 유재환(상대 67) 300 이운순(의대 52) 400 샌디에고 550 국제진료센터 이건일(의대 62) 200 이정자(간호 59) 200 윤정나(음대 57) 200 시카고 2,400 서치원(공대 69) 1,000 이명선(상대 58) 500 이재랑(상대 61) 500 이만택(의대 52) 알라스카 업소록 광고: 박양세(약대 48) 200 200 200 유재환(상대 67) 1,000 이병준(상대 55) 1,000 이준행(공대 48) 1,000 240 300 김순옥(의대 54) 이성숙(가정 74) 500 오레곤 윤상래(수의 62) 400 이정근(사대 60) 100 이홍빈(의대 57) 200 김순주(치대 95) 240 200 오하이오 300 이지춘(미대 57) 이전구(농대 60) 3,000 이정복(공대 58) 20 정인식(상대 58) 100 김원택(공대 65) 240 전무식(수의 61) 200 워싱턴 DC 2,000 김상순(상대 67) 400 임낙균(약대 64) 1,500 이 청(농대 61) 50 조정현(수의 58) 325 김일영(의대 65) 100 전방남(상대 73) 100 워싱턴주 600 김성열(치대 61) 200 이승훈(상대 74) 1,800 장정용(미대 64) 100 최한용(농대 58) 200 김재영(농대 62) 480 200 600 지흥민(수의 61) 주지아 최정웅(공대 64) 500 김창수(약대 64) 240 전경철(공대 55) 200 허선행(의대 58) 200 중부텍사스 300 정태광(공대 74) 100 차민영(의대 76) 1,000 선상옥(사대 52) 700 -남욱현(경영 84) 240 한스여행사 200 박희진(농대 78) 240 전원일(의대 77) 200 뉴잉글랜드 손재옥(가정 77) 25,000 테네시 손재옥(가정 77) 480 Website 광고: 정동구(공대 57) 300 김제호(상대 56) 100 송영두(의대 56) 200 하와이 300 워싱턴 DC 제영혜(가정 71) 300 박종승(의대 56) 200 강길종(약대 69) 200 최종문(공대 61) 200 하틀랜드 신동국(수의 76) 100 600 김혜정(문리 82) 500 하기환(공대 66) 500 박영철(농대 64) 김진수(의대 60) 100 현재원 (공대 60) 200 휴스턴 이경림(상대 64) 240

Purpose(목적): Charity(나눔) · Education(배움) · Friendship(사귐)

서울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윤수(문) · 강수상(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 오인석(법) · 이용락(공) 오흥조(치) · 이영묵(공) · 이전구(농) · 송순영(문) · 김은종(상) · 오인환(문)

명예회장 : 오인환(문)

제13대 회장: 손재옥(가정)

수석 부회장(차기 회장)I윤상래(수의)후원회 부회장I제영혜(가정)Brain Network 담당 부회장I하용출(문)사회봉사 담당 부회장I황선희(공)고문I전방남(상) · 고병은(문)

집행부: 사무총장 차임경(가정)

총무국장	┃ 심회진(음)	사업국장	한중희(공)
조직국장	백옥자(음)	섭외국장	박형준(공)
재무국장	이성숙(가정)	특별사업국장	허유선(가정)
IT개발위원장 (Webmaster)	┃ 김원영(미)	사무장	이제니

회보: 발행인 손재옥(가정)

편집/디자인 이혜림

논설위원장: 이항열(법)

논설위원 **l** 고병철(법) · 김일훈(의) · 김용헌(경) · 김창수(약) 민경훈(법) · 유재풍(법) · 윤상래(수의) · 이석구(문) 이원영(정) · 이채진(문) · 장석정(법) · 정홍택(상) 조동준(의) · 차민영(의) · 최용완(공) · 하용출(사)

회칙 위원회 : 위원장 한재은(의)

위원 | 김병연(공) · 김용헌(상) · 서중민(공) 이강원(공) · 이민언(법) · 함은선(음)

인선 위원회 : 위원장 오인환(직전 회장)

오인환(직전회장) · 손재옥(현 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정승규(공) · 김병연(공) · 민준기(공) · 이상강(의)

장학 위원회 : 위원장 손재옥(현 회장)

오인환(직전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이상강(의) 이원섭(농) · 강창석(의)

포상 위원회 : 위원장 손재옥(현 회장)

각 지역 지부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 위원장 손재옥(현 회장)

오인환(직전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이상강(의) 이원섭(농) · 강창석(의)

감사

주기목(수의) · 박영철(농)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267호 | 2016년 7월

지역		이름	연락처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회장	김병연(공대 68)	213,923,0607	byeongk@gmail.com		
S.CA/NV	차기회장	성주경(상대 68)	213,500,7977	jksung@skcinsurance.com	Feb-Jan	
 북가주	회장	임희례(간호 73)	831,818,2959	acuheerei@hotmail.com		
キバナ SANFRANCISCO	차기회장	김종수(공대 74)	484,480,0506	jskim0524@comcast_net	Jan-Dec	
	회장	김도명(농대 70)	917,207,5949	dmkim516@gmail.com		
뉴욕 NY/NJ/CT	차기회장	B=0(89170)	017,207,0010	arrivino ro eginar, com	July-Jun	
		된데어(무리 74)	070 000 0100	alaysa ab d @aaysa a luu		
뉴잉글랜드	회장	정태영(문리 71)	978,908,0196	chungty1@snuac.kr	Jul-Jun	
MA/RI/NH/ME/VT	차기회장					
달라스	회장	오기영(공대 73)	214.457.7974	kiyoungoh@gmail.com	Jan-Dec	
LA/DALLAS	차기회장					
록키마운틴스	회장	송요준(의대 64)	970,396,0616	yojunsong45@gmail.com	Jan-Dec	
MT/CO/WY/NM	차기회장					
미네소타	회장	조해석(공대 84)	952,807,6559	haeseokcho@gmail.com	Jan-Dec	
MINNESOTA	차기회장	황효숙(사대 65)	651,308,0796	sook@nano-dyne.com	our Boo	
샌디에고	회장	최흥수(자연대 87)	858,342,0245	heungsoo.choi@knobbe.com	Jan-Dec	
SAN DIEGO	차기회장	서정용(공대 81)	858.740.4843	cysuh727@gmail.com	Jan-Dec	
시카고	회장	정 승규 (공대 60)	773,562,0677	s_jung@att.net	lan Dan	
IL/IN/WI/MI	차기회장	한경진(상대 59)	847,858,7556	jimkhahn@gmail.com	Jan-Dec	
애리조나	회장	오윤환(문리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ARIZONA	차기회장					
 앨라스카	회장	윤재중(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ALASKA						
 오레곤	회장	백대현(상대 77)	503,587,0447	daehyunbaek@hotmail.com		
조네 는 OR/ID	차기회장	1 12(8 1 7		,	Jan-Dec	
	회장	이성우(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오하이오 OHIO		기경구(경네 12)	014,370,3701	TITISHANE@AITHEITHECTI, HEL	- Jul-Jun	
	차기회장	01 HB1/F511 05)	0.47.770.0004			
워싱턴 DC	회장	안선미(농대 65)	347,776,0304	sunmi_ahn@yahoo.com	Jul-Jun	
DC/MD/VA/WV	차기회장	정세근(자연 82)	703,785,8467	saekewn@gmail_com		
워싱턴주	회장	하주홍(경영 77)	402,631,3567	jh,ha@live.com	Jan-Dec	
WASHINGTON	차기회장	임헌민(공대 84)	425,444,3899	mrmsft@hotmail.com		
유타	회장	김한섭(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ul-Jun	
UTAH	차기회장					
조지아	회장	강창석(의대 73)	770,825,1004	kangs5@gmail.com	Jan-Dec	
GA/AL/MS	차기회장	이상엽(공대 85)	770,622,5163	duluthcpas2@gmail.com	oan bee	
중부텍사스	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50,4680	hi5chris@gmail.com		
MID-TEXAS						
필라델피아	회장	최정웅(공대 64)	484-467-7609	jungwoongchoi@gmail.com		
PA/DE/S.NJ	부회장				Jul-Jun	
 플로리다	회장	윤기향(법대 65)	561,962,5185	yuhn@fau.edu		
FLORIDA	차기회장				Jul-Jun	
 캐 롤 라이나	회장	이상구(자연 78)	919,610,2830	slee109@nc.rr.com		
SC/NC/KY	차기회장					
	회장	백승준(농대 85)	865,974,8216	sbaek2@utk.edu		
테네시 TENNESSEE	부회장	701/04/00/	300,011,0210	SSGG E Gail, Odd	Jan-Ded	
		서나기(므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하와이	회장	성낙길(문리 77)		-	Jul-Jun	
HAWAII	총무	전수진(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회장	이상강(의대 70)	918,687,1115	mpcsglee@gmail.com	Jul-Jun	
IA/MO/KS/NE/AR/OK	차기회장	장영준(농대 83)	913,544,2933	yjcdds@gmail_com	3	
휴 스턴	회장	최인섭(공대 75)	713,952,8989	inchoi@msn.com	lan Das	
HOUSTON	부회장	구자동(상대 70)	713,206,1942	jykey2003@yahoo.com	Jan-Ded	
allu let =	회장	이명규(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_com		
캐나다 밴쿠버	부회장	김종욱(공대 70)	604.524.0101		Jan-Dec	
	회장	정중기(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캐나다 앨버타	L -			·	Mar-Feb	

Animal Hospital | State | Page | Pag





주기목 (수의 68)



KISS®

성장하는기업"

25년간 세계 정상의 뷰티브랜드로 성장한

여러분과 함께 자녀세대의 미래를 열어갈 글로벌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호 (62) 신규천 (73) 한규상 (84) 김영훈 (93)

KISS PRODUCTS, INC.,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 www.KISSusa.com